

2025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치유를 위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연구

---

의원연구단체 『인천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연구기관 정책연구원 리더스)

## < 목 차 >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	4
1.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영향	
2. 예술치유의 개념 및 효과	
3.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4. 국내외 사회적 예술치유 관련 연구 동향	
제3장. 인천 서구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문화예술 현황 .....	18
1. 인천 서구 고립 인구 특성 및 통계	
2. 서구 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현황 및 분석	
3.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4. 사회적 고립인구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정책 포럼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	99
1. 국내 문화예술교육 우수 사례	
2. 해외 사회적 예술치유 프로그램 사례	
제5장. 서구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제안 .....	123
1. 인천 서구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2. 지역문화자원 활용형 문화예술교육 확장방안	
3. 사회적 예술치유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4.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참고문헌 .....	138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개인화 심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청년층의 은둔형 생활 양상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인간관계의 단절과 심리적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공동체 회복력 약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 서구는 수도권 서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시형 자치구로,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인구 유입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 접근성은 미흡한 상황이다. 1인 가구 비율과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은둔·고립 청년 등 새로운 사회적 고립 계층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술'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매개이자 치유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예술은 인간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며,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교육은 일방향적 문화향유를 넘어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회적 고립 완화와 심리적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단위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치유 정책은 최근 기초자치단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인천문화재단의 '2024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 서구가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서구는 자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 서구의 사회적 고립 인구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치유의 접점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반영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접근성 확대와 주민 간 연대감을 증진하는 지역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인천 서구의 사회적 고립 인구를 대상으로 예술을 통한 치유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연구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공간적 범위

연구의 주요 대상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며, 서구 내 사회적 고립 인구가 밀집한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한 국내·외 우수 사례의 경우, 유사한 지역 규모 및 행정 체계를 가진 타 기초자치체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나.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기준 시점은 2024년·202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정책 제언과 프로그램 개발은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계획으로 구성하였다.

### 다. 내용적 범위

사회적 고립 개념의 정의부터 예술치유의 이론적 배경,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와 역할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인천 서구 내 고립 인구 특성 및 문화예술 관련 정책과 조례, 프로그램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회적 예술치유 사례를 통해 서구형 모델의 가능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 라.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사회적 고립, 예술치유, 문화예술교육 관련 국내외 연구 자료, 정책 보고서, 선행 사례 분석을 통해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책 및 제도 분석: 인천 서구의 관련 조례, 2025년도 문화예술 관련 예산, 서구문화재단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다.

-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지역 예술인·주민·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국내외 사례 비교 및 현장 시찰: 국내 기초자치단체 및 해외 사회적 예술치유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고, 일부 우수 지자체는 현장 시찰을 통해 실질적 추진 방식과

성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종합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인천 서구의 사회적 고립 인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 1.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영향

#### 1) 사회적 고립의 개념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단절되어,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만을 유지하거나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접촉의 부재를 넘어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소속감의 결여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된다.<sup>1)</sup> 사회적 고립은 주관적으로는 외로움, 소외감, 고독감 등의 부정적 정서로 나타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상호작용 및 사회활동 참여 부족, 사회적 자원의 결핍 등으로 관찰된다.<sup>2)3)</sup> 특히 고령자, 1인 가구,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그 위험성이 높게 보고된다. “사회적 고립은 삶의 유지에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회적 지지의 결여 정도를 의미한다.”

#### 2) 사회적 고립의 영향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정신 건강 악화 : 사회적 고립은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등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주요 우울장애와 자살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sup>4)</sup>
- 삶의 만족도 저하 :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지지 결여는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미래에 대한 희망 상실로 연결된다.
- 신체 건강 악화 : 만성질환, 이동성 저하 등 신체적 건강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며, 특히 고령자에서 심각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사회적 취약성 심화 : 경제적 어려움, 주거 불안정, 가족 해체 등과 맞물려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며, 사회적 지원체계로부터의 배제 현상을 초래한다.

1) 박명숙, 김윤태(202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활용한 통계분석」

2) 정은혜(2024), 「노년기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정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 서구 사회적 예술치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연구 보고서(2025)

4) 서울시복지재단(2025). 사회적 고립이란. 고립예방플랫폼 톡톡.

즉, “사회적 고립은 우울, 불안, 자기 인식의 저하 등 부정적 정서를 수반하고, 삶의 질 저하와 심각한 경우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기도 하며, 단일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차원적 현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sup>5)</sup>

## 2. 예술치유의 개념 및 효과

### 1) 예술치유의 개념

예술치유(art healing 또는 arts in healing)는 예술적 표현과 창작 활동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고 회복을 도모하는 통합적 접근이다. 이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활용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내면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자기 이해, 자아 성찰, 창의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술치유는 전통적인 ‘치료(therapy)’ 개념을 넘어서는 전인적(holistic) 개념의 ‘치유(healing)’에 기반한다. 여기서 치유란 단순한 질병의 제거가 아니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고통과 소외, 상실, 트라우마 등을 겪고 난 뒤에도 자기 고유의 균형과 회복력을 되찾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술치유는 의학적·심리적 치료와 예술의 창조성을 결합한 실천적 접근으로,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정서적 복지, 사회적 통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 2) 예술치유의 효과

예술치유는 개인 차원과 사회 공동체 차원 모두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

5) 박명숙, 김윤태(202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활용한 통계분석」

(1) 정서적 치유 및 스트레스 완화

가) 예술 활동은 억압된 감정의 표현과 해소, 불안·우울 완화, 심리적 안정감 형성에 기여한다.<sup>6)</sup>

나) 내면의 갈등을 안전한 방식으로 다루게 해주며, 심리치유의 계기를 마련한다.

(2) 자기 이해 및 자존감 향상

가) 참여자는 예술적 자기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객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 수용,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이어진다.

(3) 사회적 소속감 및 관계 개선

가) 집단 기반의 예술치유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공감 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고립감 해소에도 긍정적이다.

(4) 인지 기능 및 창의성 증진

가) 예술 활동은 인지적 유연성,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여 학습과 발달 촉진한다.

나) 특히 아동·청소년, 고령자 등에게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에 효과적이다.

(5) 신체 건강 증진

가) 음악, 무용, 신체를 활용한 예술 활동은 긴장 해소, 신체 활동 증가, 생리적 안정에 기여한다.

나) 이는 호흡, 심박수, 긴장완화 등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6) 광현주(2012). 「예술심리치료의 특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

## (6) 사회적 통합 및 복지 증진

가) 예술치유는 사회적 소외, 트라우마, 고립을 겪은 개인의 사회 복귀와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사회의 통합과 회복력 강화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 3) 사회적 고립과 예술치유의 연계 가능성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정신건강 저하와 사회적 연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연구와 정책 논의에서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치유적 접근이 사회적 고립 해소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sup>7)</sup>

예술치유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나 취미 활동을 넘어, 참여자가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을 탐구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비언어적 자기표현, 정서적 해방, 몰입 체험을 통해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 자기발견, 사회적 연결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실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효과 분석 결과, 회복탄력성, 자기표현력, 즐거움, 사회적 유대감, 감정조절, 긍정적 사회 인식 등 사회적 고립의 주요 완화 요인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또한, 문화예술여가활동 참여가 외로움과 사회적 유대감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sup>9)</sup>

정책적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치유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정신적 취약성, 공동체 해체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문화예술 기반의 사회적 고립·외로움 해소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예술활동, 디지털 기반 예술치유 등 다양한 실천이 확산되고 있다.<sup>10)</sup>

7) 정보람(2022), 「문화예술기반 사회적치유 정책방안 연구」

8) 정경은(2025), 개인과 사회의 아픔을 예술로 치유할 수 있을까

9) 장혜윤(2022),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10) 정보람(2022), 「문화예술기반 사회적치유 정책방안 연구」

따라서 예술치유는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복지와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적 대안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1) 영등포구 ‘나-Be! 프로그램’

- 개요 : 영등포구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위해 ‘나 Be! 프로그램’을 운영,스트레스 탐색, 자기성찰, 취미 탐색, 스타일링 등 다양한 심리·정서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관계 형성과 정서 치유를 지원
- 효과 : 참여 청년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또래와의 안정적 관계 속에서 감정을 표현하며 정서적 안정을 회복. 이후 일자리 체험 연계를 통해 사회 진입 계기를 마련함
- 의의 : 고립·은둔 위기 청년뿐 아니라 가족까지 지원을 확대한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반의 심리·사회적 회복 모델을 제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공공 차원의 선도적 대응 사례



▲ 영등포구, 고립·은둔 청년 위한 ‘나-Be!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11)

11) 내외신문, 2024년 7월 4일 기사, <https://www.naewaynews.com/311540>

(2) 창원시 ‘청년 케유(care-you) 합창단 및 그라운드

- 개요 : 창원특례시는 사회적 고립과 고립 위기에 처한 19~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케유 합창단 및 그라운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 작년 청년 재단 공모사업에서 큰 호응을 얻은 ‘케유 그라운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올해는 3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드로잉, 캘리테라피, 움직임, 합창단 등 다양한 참여형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 프로그램은 4월 말 시작하며, 하반기 전체 교류회를 통해 활동 결과 공유 및 재고립 방지 위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 ‘그라운드 메이트’라는 참여자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해, 청년들의 상태 파악과 청년 정책 사업 참여 연계도 추진
- 효과 : 미술심리상담, 문예 활동, 요가, 합창 등 다양한 예술 및 신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자아표현과 정서적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 지속적 네트워킹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 진출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 부여를 얻음. ‘그라운드 메이트’ 프로그램이 참여자 이탈 방지 및 맞춤형 지원 제공에 기여
- 의의 : 청년 고립 문제를 예술 및 신체 활동 중심의 통합적 치유 프로그램으로 접근한 선도적 사례. 지역 사회 내 청년 참여 확대와 재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 사후 관리 및 정책 연계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청년 지원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



(3) 경기도 '일상회복·자립지원 프로그램'

- 개요 : 경기도는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 경기복지재단(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 위탁해 △실태조사 및 연구 △심리·정서·관계 회복 프로그램(일상회복) △진로탐색 및 취업지원(자립준비) △부모 교육·상담 △온·오프라인 홍보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 약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
- 효과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립 청년의 특성과 지원 필요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회복 및 자립 지원을 통해 참여자의 정서 안정과 사회복귀 역량을 강화, 부모와의 관계 개선, 상담 및 자조모임을 통한 가족 단위의 회복 기회도 제공
- 의의 : 경기도는 전국 최대 청년 인구(370만 명)를 보유한 광역지자체로,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책화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됨. 기존의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실태조사와 부모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16만 명에 이를 수 있는 고립 청년 잠재군에 대한 공공 개입의 전환점이 되는 사례로 주목

###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안내

- 본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서 진행하는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 외롭고 고립된 청년이 각자의 속도로 일상에 다가서고, '나와, 불만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여정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 천천히 그 여정을 살펴봐주세요.
-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 ✓ 경기도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1985년 ~ 2006년 출생자)
  - ✓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거나,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든 분
  - ✓ 사회 활동이 줄어 대면 교류가 거의 없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는 상태
- 신청기간: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어요.
  - ✓ 1차 신청: 2025. 6. 9(월) 09:00 ~ 2025. 6. 20(금) 17:00
  - ※ 8월 중 2차 모집 예정
- 모집인원: 500명(1차 300명, 2회 200명)
- 선정기준: 신청서 및 간단한 설문, 통화를 통한 최종 확인 등을 토대로 최종 선정 후, 개별 연락 예정입니다.
  - ※ 설문 제출이 확인되면 운영기관(희망동지협동조합 or 파이나다운청년들)에서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이며, 원활한 안내를 위해 수신 부탁드립니다.
- 지원내용: 1:1 전문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등 자세한 설명은 다음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 경기도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서 발췌

프로그램	개요	효과	의의
영등포구 나 - Be! 프로그램	고립·은둔 청년 대상 심리·정서 중심 프로그램(스트레스 탐색, 자기성찰, 취미 탐색, 스타일링 등) 운영 관계 형성과 정서 치유를 지원하며 사회 복귀 도모	참여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래와 안정적 관계 속에서 감정 표현 및 정서 회복 일자리 체험 연계를 통해 사회 진입 계기 마련	고립·은둔 위기 청년 및 가족까지 지원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반 심리·사회 회복 모델 제시 공공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 선도 사례
창원 '청년 캐 유 합창 단 및 그 라운드'	고립·은둔 청년 대상 드로잉, 캘리테라피, 움직임, 합창단 등 참여형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30명 참여, 4월 말 시작. 하반기 교류회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그라운드 메이트'로 참여자 맞춤형 관리 및 정책 연계 추진	미술심리상담, 문예, 요가, 합창 등 예술·신체 활동으로 자아표현, 정서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네트워킹 통해 사회 진출 자신감 및 동기 부여 참여자 이탈 방지 및 맞춤형 지원 효과	예술·신체 활동 중심 통합 치유 프로그램의 선도 사례 지역 청년 참여 확대 및 재사회화 모델 제시 사후 관리 및 정책 연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청년 지원 시스템 구축 기여
경기 '일상 회 복·자립 지원 프 로그램'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및 심리·정서 회복, 진로탐색·취업지원, 부모 교육·상담, 홍보 등 5개 영역 통합 지원체계 구축 경기복지재단 위탁 운영	실태조사 통해 특성과 지원 필요성 파악, 맞춤형 회복 및 자립 지원으로 정서 안정과 사회복귀 역량 강화 가족 상담 및 자조모임으로 가족 단위 회복 기회 제공	전국 최대 청년 인구 광역 지자체의 '은둔형 외톨이' 공식 인정 및 정책화 선도 사례 실태조사와 부모 지원 포함한 종합적 접근으로 공공 개입 전환점 잠재 고립 청년 16만 명 대상 정책 기반 마련

### 3.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 1) 문화예술교육의 정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인간의 창의성, 표현력, 감수성, 소통 능력, 성찰적 역량을 함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의미한다.<sup>12)</sup> 좁은 의미에서는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개별 예술 장르의 감상과 창작 능력을 기르는 ‘예술을 위한 교육’을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예술을 통한 인간 성장, 사회적 소통, 문화적 다양성 이해,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예술을 통한 교육’까지 포괄한다.<sup>13)</sup>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예술 기술을 익히는 차원을 넘어, 개인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열린 교육이다.<sup>14)</sup>

#### 2)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의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의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sup>15)16)</sup>

- 창의성 및 표현력 증진 :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자기표현 능력을 기른다.
- 정서적·사회적 성장 : 예술을 통한 감정 표현, 공감, 협동, 소통 능력, 자존감 향상 등 정서적·사회적 역량을 강화한다.
- 문화적 다양성 이해 :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며, 다름을 존중하고 열린 시각을 갖게 한다.
- 삶의 질과 공동체 의식 향상 : 예술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지역사회와의 소속감 및 연대감을 높인다.

---

12) 김선아(2015). 「학교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디자인 교육의 의미와 핵심 개념 탐색」

13) 김기덕(2007). 「사회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14) 오세준(2016).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Cultural Arts의 개념」

15) 김선아(2015). 「학교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디자인 교육의 의미와 핵심 개념 탐색」

16) 김인성(2022). 「디지털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와 전망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3) 문화예술교육의 범위와 특징

문화예술교육의 범위와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sup>17)18)19)</sup>

- 예술 장르의 다양성 :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사진, 영화, 공예 등 폭넓은 예술 영역을 포괄한다. 이는 단일 예술형식을 넘어 다장르 융합형 프로그램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 교육의 장 : 문화예술교육은 학교(정규 교육), 지역사회(사회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회관, 병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실천되고 있다. 특히 지역 기반 공공예술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 참여와 체험 중심 :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학습자의 직접적인 참여, 창작, 토론, 협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는 학습자의 주체적 태도와 자기표현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 사회적·문화적 맥락 중시 :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표현 능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통과 문화적 정체성,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의미를 중시한다. 특히 지역 문화자산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한다.

### 4) 정책적 배경과 발전

#### (1) 정책적 기반<sup>20)</sup>

국내에서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과 함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학교예술 강사제도를 포함한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본격화되었다.

#### (2) 지속적 확대<sup>21)22)</sup>

이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공예 등 다양한 예술 분야로 정책 지원이 확대되었

17) 강현주·김영아 (2021), 「인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안 연구」

18) 정옥화·한정화 (2024), 「지역 연계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미술 프로그램 개발」

19) 정지은(2022), 「마을공동체 기반의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사례 연구」

20) 문화예술교육지원법(국가법령정보센터)

21) 홍예령(2022),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

22) 고인석(2018), 「학교예술교육진흥법 제정필요성을 중심으로」

으며, 창의성 함양, 문화복지 실현, 지역문화 진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에 둔 문화예술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장애인·이주민 대상 맞춤형 예술교육, 디지털 전환 기반 온라인 예술교육 등의 새로운 흐름도 등장하고 있다.

## 4. 국내외 사회적 예술치유 관련 연구 동향

### 1) 국내 연구 동향

#### (1) 효과성 검증과 지표 개발

최근 국내에서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표준화된 측정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회복탄력성, 자기표현, 즐거움, 사회적 유대감, 감정 조절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sup>23)</sup> 이 연구는 사전-사후 설문, FGI, 델파이 기법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해 효과성 지표를 개발하고, 연도별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 강화, 문화예술적 성장을 경험하며, 창의적이고 비언어적인 자기표현이 독창적인 치유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sup>24)</sup>

#### (2) 집단별 맞춤형·통합적 예술치유 연구

노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취약계층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술치유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예술치료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시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합적으로 적용해 신체적·정서적·인지적 기능의 균형과 삶의 의미 회복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고립·외로움 해소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입증되어, 정서적 고립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 기반 접근의 실질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 (3) 정책 및 실천 연구

문화예술치유의 사회적 기능과 정책적 함의를 다루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공공정책 차원에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사회적 처방 정책의 국내외 동향, 사회

23) 정경은 개인 레포트(2025), 「개인과 사회의 아픔을 예술로 치유할 수 있을까」

24) 장혜윤(2022),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적 치유 개입요인 탐색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다.<sup>25)</sup>

## 2) 해외 연구 동향

### (1)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과 예술치유

영국, 호주 등은 예술활동을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으로 공식화하여, 의사 예술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권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고립, 우울, 만성질환 등 다양한 사회·건강 문제에 예술치유가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에 기반한다.<sup>26)27)</sup>

### (2) 팬데믹 대응 및 온라인 예술치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합창, 디지털 미술치유 등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격리·봉쇄 상황에서 예술을 통한 사회적 연결과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실제로 사회적 고립·외로움 해소에 예술치유가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다.<sup>28)</sup>

### (3) 문화다양성·사회적 연대 회복

미국, 유럽 등에서는 예술치유가 인종차별, 소수자 배제 등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문화다양성과 포용성 회복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sup>29)</sup>

---

25) 장혜윤(2022),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26) Anita Jensen(2024). "The impact of arts on prescription on individual health and wellbeing."

27) Genevieve A. Dingle. (2025). Australian and UK Perspectives on Social Prescribing Implementation Research: Theory, Measurement, Resourcing and Discovery to Ensure Health Equity

28) Anita Jensen(2024). "The impact of arts on prescription on individual health and wellbeing."

29) Anita Jensen (2024). "The impact of arts on prescription on individual health and wellbeing."

### 3) 국내외 사회적 예술치유 연구 동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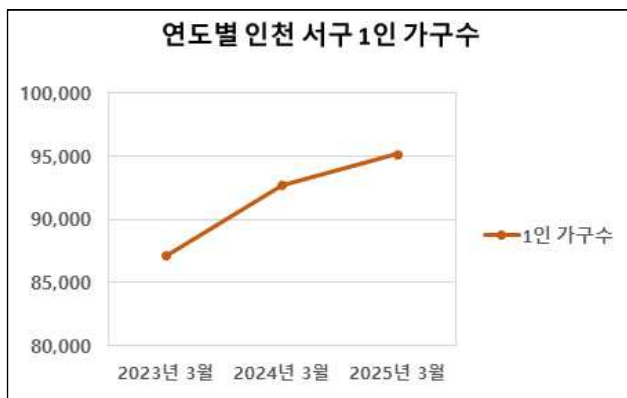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및 특징
국내 연구 동향	효과성 검증과 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효과 과학적 검증</li> <li>- 회복탄력성, 자기표현, 사회적 유대감, 감정조절 등 심리·사회적 요인 변화 실증</li> <li>- 사전·사후 설문, FGI, 델파이 기법 활용</li> <li>- 질적 연구로 심리 안정, 사회관계 강화, 창의적 자기표현 확인</li> </ul>
	집단별 맞춤형·통합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연구 확대</li> <li>- 노인복지시설 대상 통합 예술치료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시 등)</li> <li>- 신체·정서·인지 기능 균형과 삶의 의미 회복 효과</li> <li>-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적 고립 해소 효과 입증</li> </ul>
	정책 및 실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치유의 사회적 기능 및 정책함의 연구 증가</li> <li>- 공공정책 차원에서 효과 분석, 사회적 처방 정책 동향, 개입요인 탐색 등</li> </ul>
해외 연구 동향	사회적 처방과 예술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호주 등에서 예술 활동을 사회적 처방으로 공식 도입</li> <li>- 의사가 예술치유 프로그램 참여 권고 시스템 정착</li> <li>- 고립, 우울, 만성질환 등 사회·건강 문제에 효과 입증</li> </ul>
	팬데믹 대응 및 온라인 예술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합창, 디지털 미술치유 등 비대면 프로그램 연구 활발</li> <li>- 격리 상황에서 예술 통한 사회적 연결과 정서 지지 중요성 부각</li> <li>- 사회적 고립·외로움 해소에 긍정적 역할 연구 다수</li> </ul>
	문화다양성·사회적 연대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유럽 중심으로 인종차별, 소수자 배제 완화 연구</li> <li>- 예술치유가 사회적 갈등 완화와 문화다양성, 포용성 회복기여</li> </ul>

### 제3장. 인천 서구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문화예술 현황

#### 1. 인천 서구 고립 인구 특성 및 통계

##### 1)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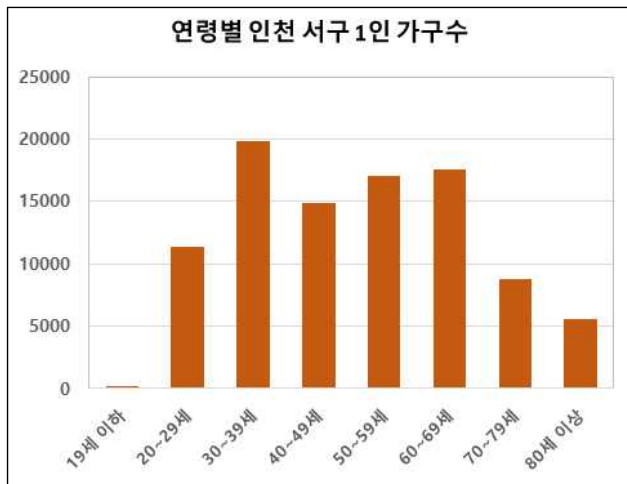
##### (1) 연도 별 인천 서구 1인 가구수 통계<sup>30)</sup>



기간	가구수 (세대)
2023년 3월	87,119
2024년 3월	92,701
2025년 3월	95,196

2025년 3월 기준 인천 서구 1인 가구수는 총 95,196 세대로, 2023년 이래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 (2) 연령 별 인천 서구 1인 가구수 통계<sup>31)</sup>



연령	가구수 (세대)
19세 이하	177
20~29세	11,351
30~39세	19,793
40~49세	14,849
50~59세	17,073
60~69세	17,587
70~79세	8,791
80세 이상	5,575

30) 행정동별 성/연령별 주민등록 1인세대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31) 행정동별 성/연령별 주민등록 1인세대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인천 서구 1인 가구는 연령대 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중 30대 1인가구수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60대, 50대 순이다.

성별에 따른 연령 별 인천 서구 1인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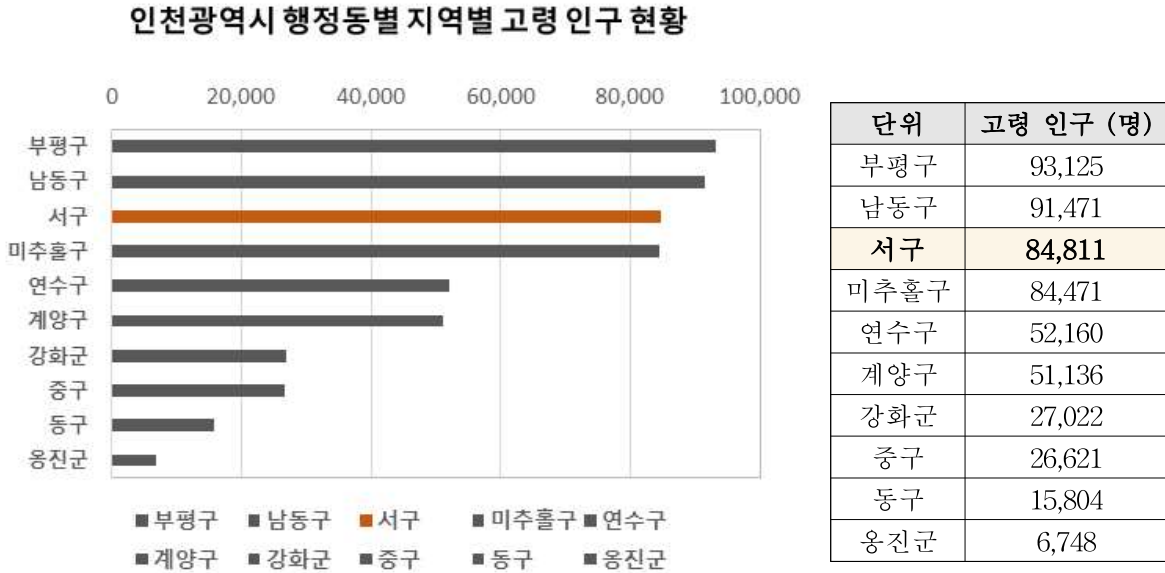
(단위 : 세대)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전체
남자	79	5,876	12,733	9,972	10,579	8,955	3,253	1,193	52,640
여자	98	5,475	7,060	4,877	6,494	8,632	5,538	4,382	42,556

1인 가구 연령대 관련 남녀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남성의 경우 30대가 12,733세대로 전체 남성의 24.2%를, 여성의 경우 60대 1인 가구가 8,632세대로 전체 여성의 20.3%를 차지하며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고령 인구<sup>32)</sup>

(1) 인천 서구 고령 인구수 통계<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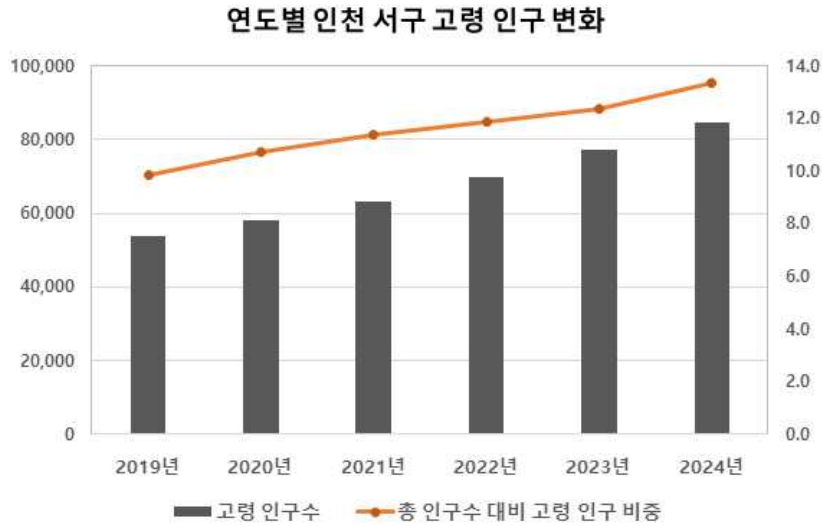


2024년 기준 인천 서구의 고령 인구수는 84,811명으로, 부평구 및 남동구에 이어 고령 인구수가 인천광역시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32) 고령 인구 정의: 만 65세 이상 인구

33) 인구 현황,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imhc.or.kr/user/index.php>) (2024년도 말 기준)

(2) 연도별 인천 서구 고령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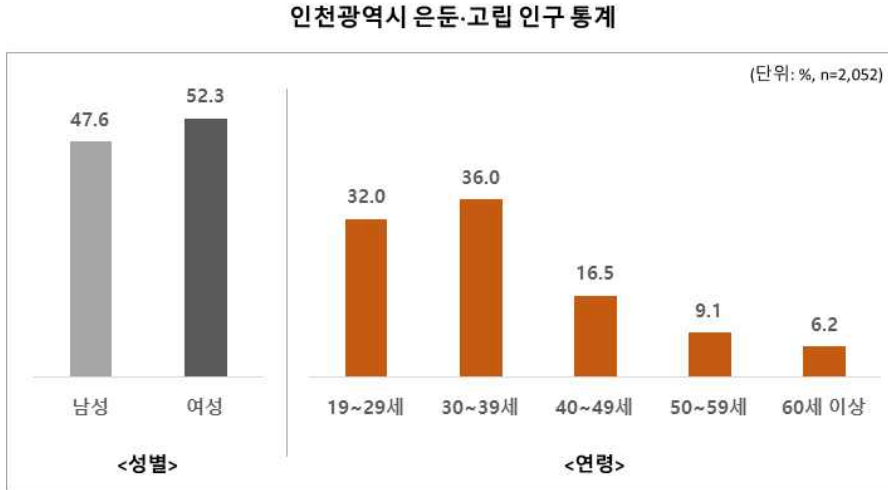


연도	고령인구수 (명)	총 인구수 대비 고령 인구 비중 (%)
2019년	53,691	9.9
2020년	58,087	10.7
2021년	63,203	11.4
2022년	69,831	11.9
2023년	77,384	12.4
2024년	84,811	13.4

인천 서구의 고령 인구수는 2019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53,691명에서 84,811명으로 최근 5년 간 매년 평균 약 6000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년 8% 이상이다. 또한 서구 총 인구수 대비 고령 인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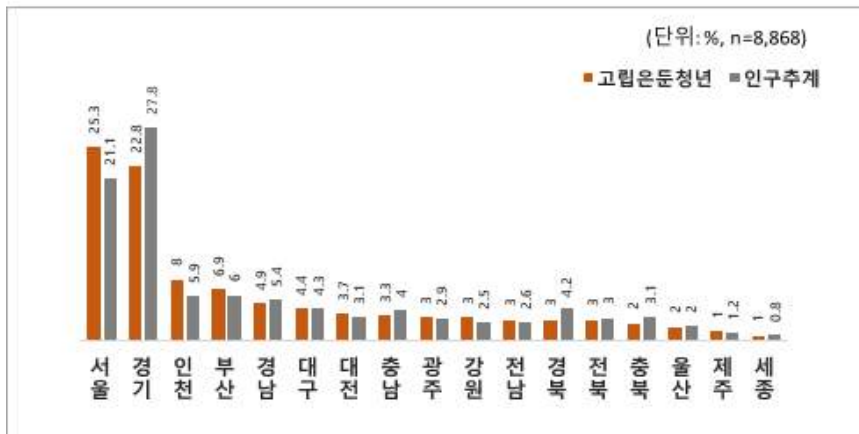
3) 은둔·고립 청년<sup>34)</sup>

(1) 인천광역시 은둔·고립 인구 통계<sup>35)</sup>



인천광역시에서 2024년 실시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총 2,052명 가운데 은둔 시작 연령은 20세~29세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세~39세, 40세 이상 순으로, 청년층 은둔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여성 참여자 비율이 소폭 높았다.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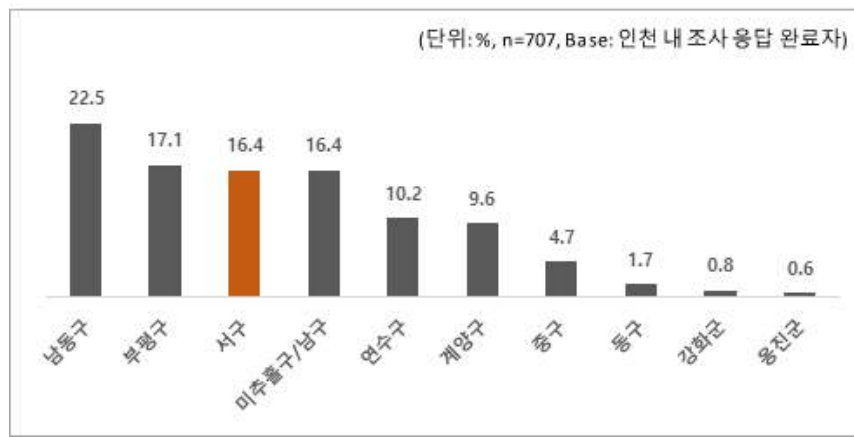


34) 인천광역시 은둔 청·장년 정의: 1) 3개월 이상의 은둔 기간 2) 극히 예외적인 경우(최소한의 생활 취미·경제활동 등)를 제외하고 한정된 혹은 밀폐된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음 3)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자본이 결핍됨 4) 규칙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학업 및 직장)에 참여하지 않는 자

35)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천광역시 보도 자료, 2024.11.22.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sup>36)</sup>에 따르면 인천시 은둔·고립청년 비율이 서울 및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8%에 달한다. 특히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인천 지역의 은둔·고립청년 비율이 인구추계에 의한 해당 지역 청년의 구성비에 비해 2.1%p<sup>37)</sup>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인천시가 은둔형 외톨이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쳐 아직 실질적 지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sup>37)</sup>

###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 인천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위의 조사 참여자 중 인천 내 조사 응답 완료자의 거주지역 분포는 남동구, 부평구에 이어 서구가 세 번째로 빈도가 높았다.

36) 김성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11.

37) 이재희, “인천 고립·은둔청년 8% 달해... 지원정책은 ‘전무’”, 『인천투데이』, 2024.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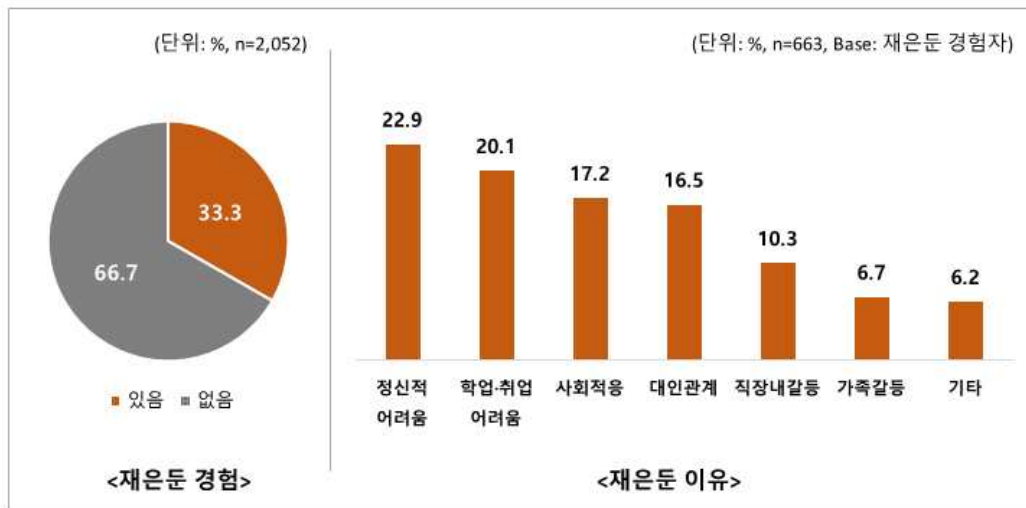
(2) 은둔·고립 이유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향<sup>38)</sup>

(단위: %, n=2,052)

은둔 이유	총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직업관련	35.8	28.8	44.3	34	37.1	25
정신적	16.4	19.5	14.8	15.8	11.3	7.5
대인관계	15.7	16	16.4	16.4	7.2	12.5
가족관련	8.5	6.1	7.5	12.7	15.5	27.5
학업관련	7.1	11.1	5.5	3.3	1	5
건강상	5.9	3.4	4.7	11.2	16.5	17.5
가정학교폭력	1.6	2	1.5	1.5	0	0
이유없음	4.5	9.1	1.5	0.9	4.1	5
기타/모름	3.4	4	3.8	4.2	7.2	0

은둔·고립 이유는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 관련’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특히 19세~39세 청년의 경우 ‘정신적’, ‘대인관계’ 어려움이 2, 3위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재은둔 경험 및 이유



전체 응답자 중 33.3%가 일상생활 복귀 시도 후 재은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재은둔 이유는 불안,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 (22.9%)이 가장 높아 이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38)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천광역시 보도 자료, 2024.11.22.

연 번	종류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향	선호 순위 (당사자)	선호 순위 (가족)
1	교육지원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지원 (AI역량, 목공예 등)	1	5
2	생활지원	상점 이용쿠폰 지원	2	10
3	회복지원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3	2
4	회복지원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4	1
5	생활지원	생활서비스 지원 (지역 인근 상점 연계)	5	8
6	교육지원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6	4
7	공동활동	공동 작업 프로그램 (공예, 부엌, 일체형 등)	7	7
8	공동활동	안식 공유 프로그램 (휴식, 운동, 게임 등)	8	3
9	회복지원	은둔생활 극복을 위한 지식과 정보제공	9	6
10	공동활동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지원	10	11
11	생활지원	힐링하우스 사업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11	14
12	교육지원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12	9
13	마음건강·정서지원	메타버스(혹은 비대면) 상담·치료 서비스	13	12
14	관계이해	공감대 형성 및 의사소통 기술교육	14	13
15	마음건강·정서지원	거주지 밖(카페 등) 상담 서비스	15	15
16	관계이해	소셜 다이닝 등 열린 소통 모임	16	17
17	마음 건강 및 정서 지원	정기 상담, 긴급상황 현장출동 등	17	16
18	관계이해	참여자 간 자조모임(소속감, 경험 나누기)	18	18
19	공동활동	숙박형 소규모 단기 워크숍	19	20
20	마음 건강 및 정서 지원	거주지 방문 상담 서비스	20	19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향 및 선호도 도식화

전체 응답자의 39.3% (당사자 36.2%, 가족 46.6%)가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당사자의 경우 ‘관심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AI역량, 목공예 등)’에 대한 참여 의지가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순한 상담 및 정서적 지원 보다는 ‘공동 작업 프로그램 (공예, 부엌, 일체형 등)’, ‘안식 공유 프로그램 (휴식, 운동, 게임 등)’ 등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서구 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현황 및 분석

### 1) 2025년 서구 내 주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현황<sup>39)</sup>

현재 인천 서구 내 주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대부분 인천서구문화재단의 주최로 진행되고 있다. 2024년 인천서구문화재단은 발길이 뜸해져 가는 거북시장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부흥시켰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서구 지역을 문화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2025년의 주요 사업 목표는 문화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서구민 누구나 문화예술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연령 및 배경의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어디서나 일상적인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는 도시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2025년 인천 서구에서 진행 예정인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가운데 문화예술치유와 연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서구드림 예술학교’, ‘찾아가는 서구문화배달’, ‘클래식 재즈 팝업연주회’, ‘거북시장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등이다. 이는 2024년부터 시작된 사업의 연장선으로, 서구 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직접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 간 문화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1) 찾아가는 서구드림 예술학교

인천 서구의 아동·청소년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권리 충족과 지역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관내 아동·청소년 및 문화소외계층의 이용기관으로 교육단체가 찾아가 장르 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대상자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39) 인천서구문화재단 사업소개 ([https://www.iscf.kr/\\_new/html/index/](https://www.iscf.kr/_new/html/index/))



## (2) 찾아가는 서구문화배달

찾아가는 공연을 연간 총 8회 개최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권역에서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격차 해소 및 일상 속 문화예술 경험 확장에 기여하고, 시·공간적 제약을 탈피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클래식, 전통예술, 연극, 무용, 대중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동네 곳곳으로 직접 찾아가 아트트럭, 야외 가설 무대 등을 통해 구민들의 일상 속 가까운 곳으로 예술을 배달하고자 한다.



40) 출처: 에듀꿈앤끼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e yng12/223589009694>)

### (3) 클래식·재즈 팝업 연주회

주민 참여 예산에 선정된 사업으로, 서구 관내 다양한 장소로 찾아가는 <클래식·재즈 팝업연주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클래식 및 재즈 아티스트들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하며 비교적 문화가 소외된 원도심 지역 등 문화소외지역 거주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거북시장 일대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구민이 주체가 되는 7개의 세부 사업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쇠퇴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사람들이 다시 찾는, 서구민의 자부심이 되는 거리 공간으로의 탈바꿈을 기대하고 있다.

거북 시장을 중심으로 유희 공간 발굴 및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 운영, 거리축제, 공공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문화로 공감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출처 : 인천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

2) 서구 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분석 및 방향성

(1) 서구 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분석

최근 약 3년간 인천 서구에서 수행되었거나 2025년 올해 수행 예정인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대상자, 사업 목적, 사업 목표 및 형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41)

년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명	대상자	사업 목적	사업 목표	형태	
2022	감사 아트 클래스42)	일반 (2030 청년)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확장	심리 정서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완화 자존감, 자신감 회복	미술 치유 프로그램	
2023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사회취약계층 (소외 아동,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확장	발달 심리 정서 사회성 발달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완화	문화예술 교육	
	마음 따라, 미술 따라43)	사회취약계층 (정신장애인)			미술 치유 프로그램	
2024	서구 드림 아카데미	문화소외지역 주민	인프라 구축 시설 구축	문화 예술 문화 예술 이해,관람, 체험.창작,향유	문화예술 교육 공간 조성	
	서구드림 프로젝트 (에코-캠핑의자 만들기)	일반 (청년)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확장		문화적 감수성	문화예술 교육
	서구드림 프로젝트 (마을 로고송 창작)	일반 (청소년)			창작	
	서구드림 프로젝트 (생애기념일 달력 만들기)	일반 (지역주민)		창작		
	서구드림 프로젝트 (오디오북 자서전 만들기)	일반 (장년층 및 노인)		문화 예술 심리 정서 문화 예술 이해,관람, 체험.창작,향유 자아성찰, 자기인식	미술 치유 프로그램	
	나와 마을이 스며들 때: 나마스때44)			심리 정서 사회적 유대 자아성찰, 자기인식 공동체 형성 및 화합		
	마을영화 워크숍	일반 (시민, 지역주민)		지역문화 예술활성화	문화 예술 문화 예술 이해,관람, 체험.창작,향유	문화예술 교육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공연 및 체험			
	청라 뮤직 & 와인 페스티벌					
2025	찾아가는 서구드림 예술학교	일반 (아동, 청소년, 문화소외지역주민)	프로그램 운영 문화적 격차 해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확장	문화 예술 문화 예술 이해,관람, 체험.창작,향유	문화예술 교육	
2024~2025	찾아가는 서구 문화배달	문화소외지역주민			문화 예술	공연
	클래식 재즈 팝업연주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일반 (시민, 지역주민)	인프라 구축 지원체계기반조성		공연 및 전시	

41) 하기 출처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인천서구문화재단에서 주최함 (출처: 인천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인천 서구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2023년 초기에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대상군이 다양화되어 일반대상군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문화소외지역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여 문화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사업 목적 측면에서도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및 확장하고, 구민들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업 목표 측면에서도 구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을 이해·관람·체험·창작·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그램 형태는 ‘문화예술교육’, ‘공연·체험·전시’, ‘미술 치유 프로그램’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42) 출처: 인천광역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youth.incheon.go.kr/space/inuu/>)

43) 조완경,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치유프로그램 ‘마음따라, 미술따라’ 전시회 개최”, 『미디어생활』, 2023.11.22.

44)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홈페이지 (<https://www.inscc.kr/user/index.php>)

(2) 서구 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방향성

국내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사업의 변화추이와 방향성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정현주 외, 2024)<sup>45)</sup>,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행된 사업들의 주제어와 범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수혜대상 측면에서 예술전문가 외 대상군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일반대상군과 사회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사업 목표 측면에서는 정서적 안정, 삶의 질 향상,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처치유를 포함한 심리정서 관련 목표가 가장 주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현재 인천 서구 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여 도표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사업	인천 서구 사업
수혜 대상	<b>수혜 대상 다양화</b> - 예술 전문가의 수혜비율 감소 - 일반대상, 사회취약계층군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혜 대상이 다양화 됨	<b>수혜 대상 다양화</b> - 일반 대상군의 비율 증가 -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비율 증가 경향 - 사회취약계층군의 비중은 다소 낮음
	<b>사업 목표</b> - 심리정서 및 문화예술 관련 목표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최근에는 심리정서 관련 목표가 증가하는 추세	<b>문화예술 접근성 확대에 초점 심리 정서 관련 목표 비중 다소 낮음</b> - 문화예술 (이해, 관람, 체험, 창작, 향유) 범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최근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시도 - 심리정서 관련 목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국내 및 인천 서구 문화예술치유 사업 비교 분석표

현재 인천 서구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도입 초기 단계로서, 문화 소외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민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브릿지 역할을 제1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5) 정현주, 정유선 (2024), 국내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사업의 방향성 분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4(2), 97-118.

하지만 최근 진행된 프로그램의 사업목표를 분석해 보았을 때, 예술을 매개로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목표’를 추구하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2024년~2025년 인천 서구 내에서 ‘심리정서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채움의 숲 (계양공원 사업소)’, ‘다시 일어서는 힘 (인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어쩌다 고립 (인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인데, 이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형태가 아닌 삼림 치유, 심리 치유 강좌 형태였다. 문화예술이 지닌 심리치유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치료적 고유성이 사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심리정서적 목표를 다루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 1) 문화·예술 관련 예산 분석

<b>세출총괄표</b>						
202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능 별 】 <span style="float: right;">(단위:천원)</span>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1,344,331,633	100.00 %	1,329,258,119	100.00 %	15,073,514	1.13 %
010 일반공공행정	79,527,159	5.92 %	71,292,159	5.36 %	8,235,000	11.56 %
011 입법및선거관리	1,975,271	0.15 %	1,975,271	0.15 %	0	0.00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1,455,151	0.11 %	1,455,151	0.11 %	0	0.00 %
016 일반행정	76,096,737	5.66 %	67,861,737	5.11 %	8,235,000	12.13 %
020 공공질서및안전	22,973,523	1.71 %	22,461,783	1.69 %	511,740	2.28 %
025 재난방재·민방위	22,973,523	1.71 %	22,461,783	1.69 %	511,740	2.28 %
050 교육	18,627,773	1.39 %	18,512,653	1.39 %	115,120	0.62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6,887,818	1.26 %	16,867,818	1.27 %	20,000	0.12 %
053 평생·직업교육	1,739,955	0.13 %	1,644,835	0.12 %	95,120	5.78 %
060 문화및관광	31,942,337	2.38 %	31,342,337	2.36 %	600,000	1.91 %
061 문화예술	20,946,961	1.56 %	20,946,961	1.58 %	0	0.00 %
063 체육	10,995,376	0.82 %	10,395,376	0.78 %	600,000	5.77 %
070 환경	61,126,818	4.55 %	61,126,818	4.60 %	0	0.00 %
072 폐기물	58,562,483	4.36 %	58,562,483	4.41 %	0	0.00 %
076 환경보호일반	2,564,335	0.19 %	2,564,335	0.19 %	0	0.00 %

▲세출총괄표 - 202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중 일부 발췌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추경3회 <sup>46)</sup>		2025년도 추경 1회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계	1,439,325,144	100.00 %	1,344,331,633	100.00 %
060 문화 및 관광	26,505,667	1.84 %	31,942,337	2.38 %
061 문화예술	17,328,382	1.20 %	20,946,961	1.56 %

2025년 인천 서구의 추경 1회 예산<sup>47)</sup>은 약 1조 3,443억원이다. 이 중 문화 및 관광 예산은 약 319억원인데 전체의 약 2.38%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 문화 및 관광 예산과 비교했을 때 약 54억원 (약 20.51%)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전년 약 173억원에서 약 209억으로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약 36억원, 퍼센트로는 약 20.88%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했다. 인천 서구의 문화 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46) 인천광역시 서구 세출 총괄표 - 2024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47) 인천광역시 서구 세출 총괄표 - 202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 ■ 2025년도 지출 예산서 (종합)

(단위: 천원)

부 문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4년 본예산 (A)	2025년 본예산 (B)	증감액 (B-A)
<b>문화 및 예술</b>				<b>6,880,690</b>	<b>7,720,818</b>	<b>840,128</b>
<b>문화예술</b>				<b>5,049,877</b>	<b>6,002,611</b>	<b>952,734</b>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444,000	534,000	90,000
서구예술활동 지원사업				194,000	194,000	0
청라블루노바를 기획공연				150,000	70,000	△80,000
청라블루노바를 기획전시				40,000	10,000	△30,000
인천어린이공연예술축제				60,000	60,000	0
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				0	200,000	200,000
생활문화 진흥 사업				95,000	85,000	△10,000
서구생활문화축제				95,000	85,000	△10,000
<b>문화복지사업</b>				<b>135,000</b>	<b>190,000</b>	<b>55,000</b>
서곶문화예술제				80,000	100,000	20,000
찾아가는 서구문화배달				55,000	60,000	5,000
다문화가족 문화 실태조사				0	30,000	30,000
<b>지역문화 진흥사업</b>				<b>766,575</b>	<b>1,184,000</b>	<b>417,425</b>
문화재단 정책사업				96,575	40,000	△56,575
문화재단 기관홍보사업				50,000	40,000	△10,000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0	350,000	350,000
서구 청소년 음악제(구 서곶 피아노 콩쿠르)				20,000	30,000	10,000
원도심 문화소외지역 문화공간 운영(석남)				190,000	160,000	△30,000
K-뮤직&댄스 페스티벌				80,000	84,000	4,000
주민이 만드는 거북골 문화예술로				70,000	100,000	30,000
인천 서구 문화적 현상 연구				0	0	0
청라 물빛 아트 페스티벌				0	0	0
문화공간 터·틀(검단) 조성 및 운영				0	380,000	380,000
무지개 거리 조성사업				50,000	0	△50,000
로컬크리에이터 문화보수상				50,000	0	△50,000
기술로 결합하는 공공미술				60,000	0	△60,000
미디어 아트랩 사업				100,000	0	△100,000
<b>문화예술 교육사업</b>				<b>96,200</b>	<b>299,000</b>	<b>202,800</b>
K-POP 아카데미				0	50,000	50,000
서구 드림 아카데미(신현) 운영				0	180,000	180,000
음악으로 그리는 미술관(학교 연계 예술교육)				0	55,000	55,000
공의 오케스트라(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				0	14,000	14,000
서구민예술학교(구 서구문화대학)				56,200	0	△56,200
찾아가는 서구 드림 예술학교				40,000	0	△40,000
<b>주민참여 예산사업</b>				<b>106,000</b>	<b>0</b>	<b>△106,000</b>
서구민 마을영화 만들기 프로젝트				66,000	0	△66,000
클래식·재즈 팝업 연주회				40,000	0	△40,000
<b>조직운영</b>				<b>3,407,102</b>	<b>3,710,611</b>	<b>303,509</b>
운영경비(총괄)				3,407,102	3,710,611	303,509
<b>위탁사업</b>				<b>1,648,913</b>	<b>1,596,307</b>	<b>△52,606</b>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100,000	120,000	20,000
정서진아트큐브 운영				0	10,000	10,000
서구문화회관 하우스 운영				0	30,000	30,000

▲ 인천서구문화재단 2025년도 세출 예산서 전체 (1/2)

부 문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4년 본예산 (A)	2025년 본예산 (B)	증감액 (B-A)
			청라블루노바홀 하우스 운영	100,000	80,000	△20,000
			생활문화 진흥사업	85,000	69,235	△15,765
			가정생활문화센터 운영	85,000	69,235	△15,765
			문화복지사업	465,740	399,372	△66,368
			서구립예술단 운영	465,740	399,372	△66,368
			지역문화 진흥사업	200,000	0	△200,000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위탁사업→문화예술 이동)	200,000	0	△200,000
			시설운영	798,173	1,007,700	209,527
			서구문화회관 무대 관리운영	21,718	150,928	129,210
			서구문화회관 시설 관리운영	295,361	403,640	108,279
			청라블루노바홀 무대 관리운영	78,066	28,672	△49,394
			청라블루노바홀 시설 관리운영	386,122	421,460	35,338
			가정생활문화센터 무대 관리운영	16,906	3,000	△13,906
			예비비	181,900	121,900	△60,000
			예비비	181,900	121,900	△60,000

▲ 인천서구문화재단 2025년도 세출 예산서 전체 (2/2)

현재 인천 서구 내에서 대부분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있는 인천서구 문화재단의 2025년도 세출 예산서에서 2024년도 대비 증가한 예산 항목을 살펴본 결과,48) 전반적으로 문화 및 예술 총 예산이 약 8억4천만원 가량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가한 예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9천만원, △문화복지사업 약 5천만원, △지역문화 진흥사업 약 4억원, △문화예술 교육사업 약 2억원, △조직운영 약 3억원, △시설운영 약 2억원 등이 있다. 감소한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사업 약 1억원, △생활문화 진흥사업 약 1천만원, △문화복지사업(서구립예술단 운영) 약 6천만원, △지역문화 진흥사업 약 2억원 등이 있다.

48) 인천서구문화재단 2025년도 세출 예산서 (출처: 인천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2) 조례 및 제도 현황

### (1)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sup>49)</sup>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20.05.18.]

(제정) 2020.05.18 조례 제1767호

관리책임부서명: 문화관광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032-560-43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 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인천 서구, 제9편 문화관광체육, 제1장 문화예술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이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지원센터에서는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5.18.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sup>50)</sup>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2024.07.08 조례 제2150호 조례 제21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560-43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3.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50)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인천 서구, 제9편 문화관광체육, 제1장 문화예술

4. 축제 및 그 밖에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개정 2016.7.8)

제3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은「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및「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4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7조(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착공 후 90일 이내에「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 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 마다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문화·예술 축제 지원

제9조(구민축제 개최)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구민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0조(축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축제위원회의 기능)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 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12조(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 행정문화국장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2023.8.28., 2024.7.8.)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8]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축제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때

제17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며 대내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위원회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대표인사와 축제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체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들에게 축제에 관한 의견을 들어 축제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의 종류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8조제1항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분과위원회에 추가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제14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위원회”는“분과위원회”,“위원장”은“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0조(사업비의 보조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 관련 예산 집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6.7.8., 2023.11.6.)

제22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축제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사업정산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협조)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3)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sup>51)</sup>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4]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1627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560-43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회관 운영·관리
2.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운영·관리
3.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
4. 생활문화진흥 관련 사업 시행
5.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구 문화대학 운영)
6.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에서기본재산으로출연한 재산

51)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인천 서구, 제9편 문화관광체육, 제1장 문화예술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연령대를 고려하여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이들을 임원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8.12.24)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구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을 우선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이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구에서 부담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

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감독·보고·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 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7.12 조례 제15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6조제2호 중 “문화회관 및 문화·체육”을“체육”으로 한다.

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12.24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sup>52)</sup>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1.09.27]

( 제정) 2021.09.27 조례 제1897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560-43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의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2)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인천 서구, 제9편 문화관광체육, 제1장 문화예술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 공간과 공연·전시 공간 등 문화공간의 확보 및 조성 지원
3.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4.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예술 기획 등 청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지원
7.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예술인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재난 위기 시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 지원
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sup>53)</sup>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시행 2024.11.04]

(일부개정) 2024.11.04 조례 제2201호

관리책임부서명 : 가정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560-34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4.>

53)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인천 서구, 제18편 가정보육, 제2장 가족지원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4.>

[제목개정 2024.11.4.]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 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건강 지원 사업

3.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

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조요청 등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3.3.17.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4.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서구문화재단의 역할과 관련 사업

#### (1) 서구문화재단의 역할

- 인천 서구 문화재단은 2018년 1월 출범한 기초문화재단으로,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2025년 인천 서구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자치도시를 비전으로 운영중에 있다.
- 인천 서구 문화재단은 문화기반 정립, 문화가치 확산, 문화향유 내재화, 책임경영 실천 총 4가지를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 문화기반 정립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인천 서구형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과 인천 서구문화 실태조사 실시가 있다. 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권역별 문화거점공간 운영, 문화의 거리 확대 조성이 있다. 문화향유 내재화를 위해서는 구민 일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사업 확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문화사업 지속이 있다. 끝으로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영역량 확보 및 사업성과의 객관적·체계적 평가 실시를 세부 과제로 삼고 있다.



(2) 인천서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주요 사업

연번	교육명	기간	교육 내용
1	 <p>k-pop 아카데미</p>	07.17 - 11.09	k-pop 댄스 교육 수업
2	 <p>우리동네, 예술누리</p>	07.08 - 11.20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문화예술교육
3	 <p>2025 우리동네 영화관 하반기 상영작 안내</p>	07.01 - 12.16	영화를 보며 이웃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는 프로그램

<p>4</p>	 <p>서구드림 프로젝트 &lt;서로-예술광장&gt; 7월</p>	<p>06.23 - 07.16</p>	<p>목요일 저녁마다 서구드림 아카데미에서 월별 예술강사가 예술교육 경험을 나누고, 네트워킹을 하며 서로 고민과 질문을 나누는 프로그램</p>
<p>5</p>	 <p>[한번쯤 예술] 여름_바다와 유리의 공방</p>	<p>06.04 - 07.31</p>	<p>유리 공예 체험 프로그램</p>
<p>6</p>	 <p>꿈의 극단 인천 서구</p>	<p>05.22 - 11.27</p>	<p>청소년 극단원 모집 사업</p>

<p>7</p>	 <p>2025 연극연극교육교육포럼...  <b>렉처형 콘서트</b>  <b>이중섭 그림과 편지</b>      미술교육축제와 함께 공연관람!  <b>「이중섭, 그림과 편지」</b>      2025.05.18.(금) 15시 삼삼플랫폼 웨비나홀</p> <p>지역당도: (문의) 032-565-4529   후원: (문의) 032-565-4529      후원단위: (문의) 032-565-4529   후원처: (문의) 032-565-4529</p>	<p>05.18</p>	<p>이중섭작가의 편지와 그림으로 이루어진 렉처형 콘서트</p>
<p>8</p>	 <p><b>2025년도 생활배우 모집 공고</b>  <b>연극 할래요!</b>      배우가 되고 싶고, 무대에 서고 싶은 여러분! 이제 꿈을 이루세요~</p> <p><b>모집개요</b>      ◦ 모집대상: 만 18세 이상 누구나      ◦ 강의기간: 2025. 5. 7(수) ~ 11. 26(수) 일반부 2시~4시 직장부 7시~9시      ◦ 접수기간: 2025. 4. 14 ~ 4. 30      ◦ 접수방법: 전화 접수 및 문자 접수      문의전화 032)565-4529 (대중아트홀)</p>	<p>05.07 - 11.26</p>	<p>생활 배우 모집 사업</p>
<p>9</p>	 <p>초, 중, 고등학교 연계형 음악 감상과 미술 창작을 결합한 융합형 예술 체험프로그램  <b>음악으로 그리는 미술관</b></p>	<p>04.30 - 05.15</p>	<p>초,중등학교 연계형 음악 감상과 미술 창작을 결합한 융합형 예술 체험프로그램</p>

<p>10</p>	 <p>한번쯤 예술 - 봄 (스크래치 아트 페이퍼 만들기 / 무료)</p>	<p>04.15 - 05.30</p>	<p>가정의 달 기념 카네이션 아플리에 체험 프로그램</p>
<p>11</p>	 <p>2025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생태예술학교 &lt;에코-아트놀이터&gt;</p>	<p>04.12 - 07.26</p>	<p>하나은행과 함께 하는 에코-예술 교육 원데이 체험</p>

(3) 인천서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대표 사업

가) 서구 문화예술교육 방향찾기

- 온라인 설문조사 (2025. 4. ~ 6. 서구 주민 901명 대상)<sup>54)</sup>
- 1권역 : 연희, 검암, 경서, 공천, 백석, 시천, 심곡
- 2권역 : 청라
- 3권역 : 신현, 원창, 가정
- 4권역 : 석남, 가좌
- 5권역 : 검단, 오류, 불로, 당하, 원당, 아라, 대곡, 마전, 왕길
- 5개 권역/생애주기별 구분 기준

* 5개 권역/생애주기별 이란?					
인천 서구를 5개 권역으로 인구분포도에 따라 생애주기별 대상층으로 구분했습니다. 각 권역별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표〉 인천광역시 서구 권역별 인원, 주 연령 현황, 교육대상 선정					
(단위: 세대, 명, %)					
권역	행정동	인원	연령(분포)	교육대상	
				대상	대상연령(분포)
1권역	연희, 검암, 경서, 공천, 백석, 시천, 심곡	91,992	50대(18.7%)	신중년	50대(18.7%)
2권역	청라	113,234	40대(23.6%)	청소년	10대(12.4%)
4권역	석남, 가좌	103,946	60대(19.6%)	시니어	60대(19.6%)
5권역	검단, 오류, 불로, 당하, 원당, 아라, 대곡, 마전, 왕길	218,560	40대(18.9%)	아동	6~10세(5.8%)

▲ 서로-예술노리 공모 공고문 발췌

인구분포도에 따라 인천 서구를 1권역부터 5권역으로 나누어 연령분포에 따라 교육대상을 선정하여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3권역의 경우 가정, 신현, 원창 지역으로 2024년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 심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정이다.

54) 온라인 설문조사. 인천서구 제공

- 기본형 질문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남성 (284) 여성 (435) 응답하지 않음 (6)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10대(10살~19살)	5
20대(20살~29살)	39
30대(30살~39살)	153
40대(40살~49살)	189
50대(50살~59살)	167
60대 이상	172

3. 귀하는 마을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중복투표가능)

주민자치회 등 자생단체 활동	104
마을공동체 활동(문화 활동)	140
학부모 활동	141
행정 및 전문가 활동	50
활동 없음	366

4. 서구 문화예술교육은 생애주기별 생활밀착형을 기획하여 5개의 권역으로 <서구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권역에 거주하십니까?

제1권역(검암경서동, 연희동)	72
제2권역(청라1동~3동)	352
제3권역(가정1동~3동, 신현원창동)	130
제4권역(석남1동~3동, 가좌1동~4동)	62
제5권역(오류왕길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아라동)	109

5. 귀하께서 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전부터 살아와서	180
저렴한 주거비	52
개발가능성	125
직장	92
친한 친척, 이웃관계	27
자녀 교육 때문에	31
생활·문화, 교통 편의성	162
이사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되어	36
기타	20

6. 서구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노후주택·골목길 등 주거 환경	137
지역 내 일자리 및 소득 창출	201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생활·문화 활동	188
누구나 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활동	66
생태·환경 보존 활동	53
일상 속 생활 안전	44
기타	36

7. 귀하께서 일상생활에서 교류(친밀하게 소통하는)하고 있는 이웃은 몇 명인가요?

없다	121
1명	56
2명	144
3명	94
4명	47
5명 이상	263

8. 귀하가 지난 1년동안 가장 많이 했던 여가 활동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하기)

TV 또는 OTT(넷플릭스 등)서비스 시청	226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등)	97
인문학 활동	35
스포츠 관람	52
건강증진활동 (축구, 등산, 조깅 등)	198
여행, 나들이 (산책)	280
컴퓨터 게임, 인터넷 (유튜브) 검색 등	66
자원봉사 활동	31
종교 활동	57
집에서 휴식	106
친교 모임(식사, 회식 등)	77
기타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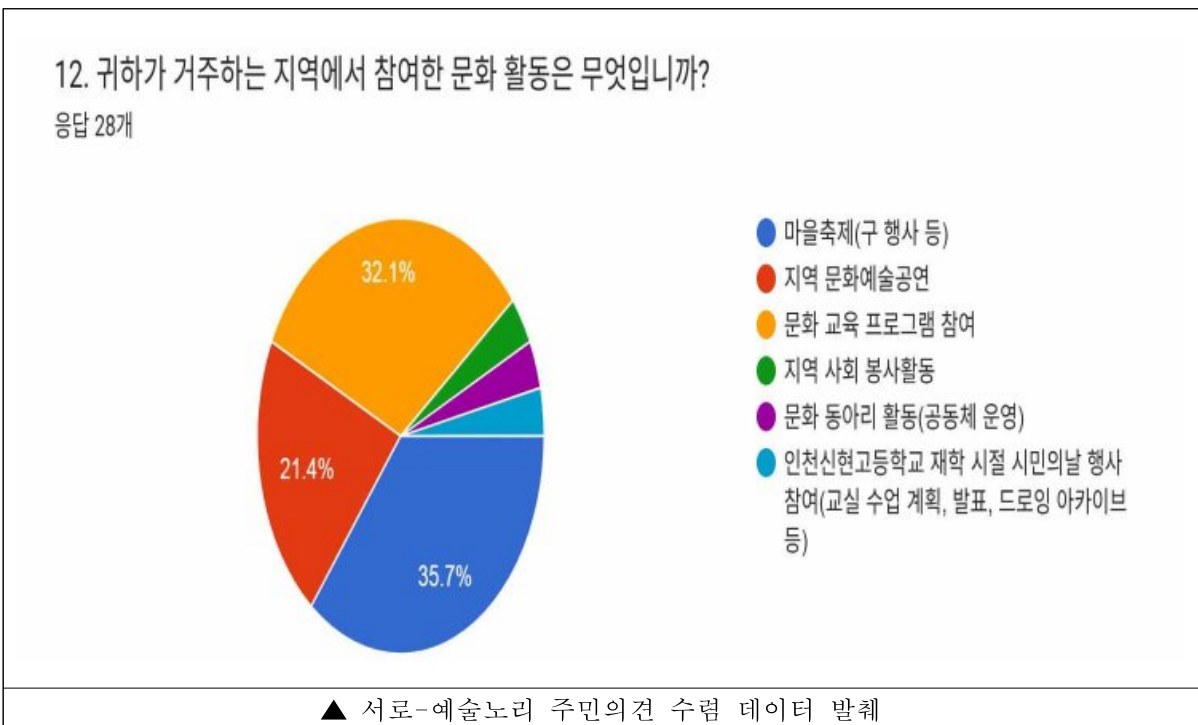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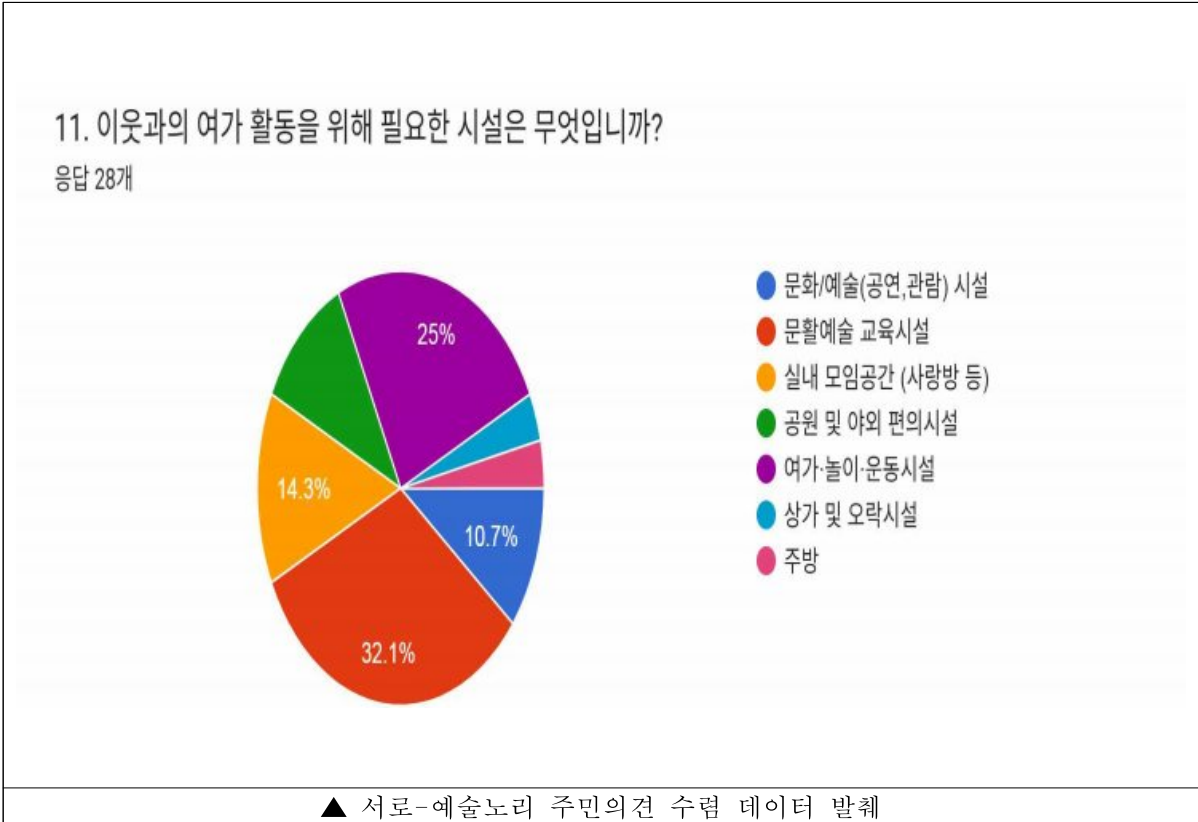
9. 귀하는 여가 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혼자서	104
가족과 함께	397
친구와 함께	149
직장동료	15
동호회 회원	54
기타	6

10. 귀하께서 가장 배우고 싶은 여가 활동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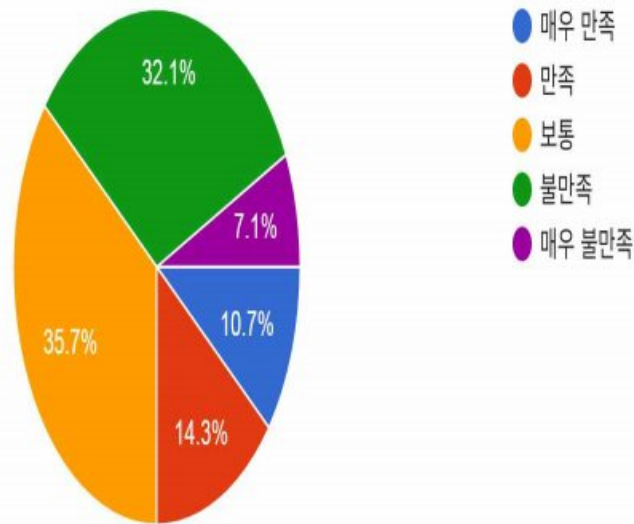
미술 관련 활동(그림, 서예, 캘리그래피 등)	155
노래 관련 활동(합창, 노래배우기 등)	95
연주 관련 활동(악기연주, 밴드 활동 등)	182
인문학 관련 활동(책 만들기, 글쓰기 등)	116
미디어 관련 활동(사진, 영상촬영 및 편집, 방송 등)	170
스포츠 관련 활동(각종 생활스포츠 활동)	330
생태 관련 활동(해설사, 놀이지도사 등)	64
기타	25

① 1권역(신중년 중심) 설문조사



13. 귀하는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환경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응답 2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4.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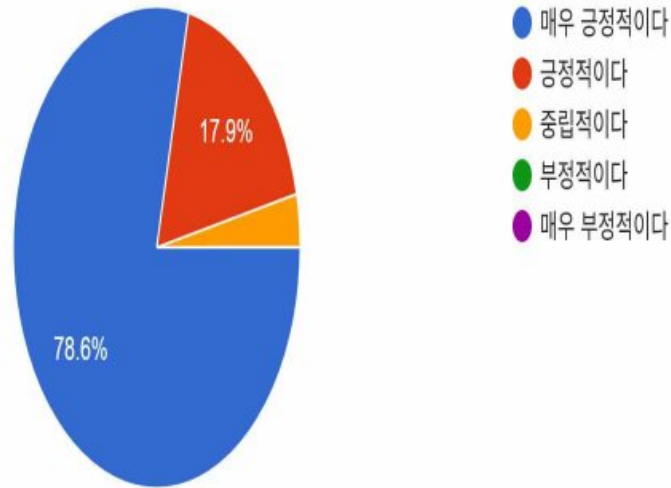
응답 2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5. 지역문화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 2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7. 귀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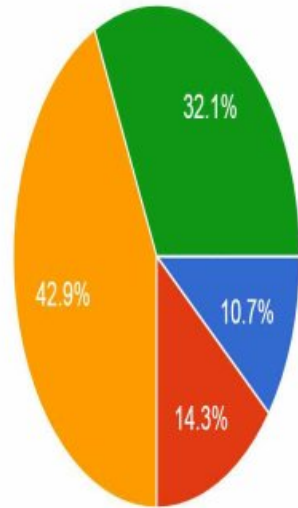
응답 2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8. 귀하는 문화예술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응답 2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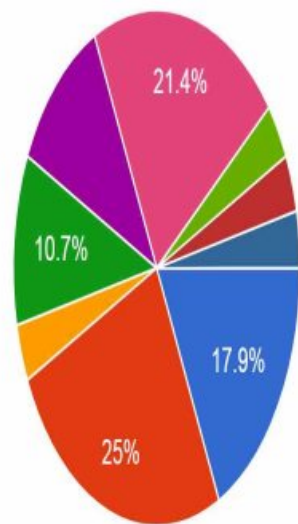


- 년 5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
- 년 3개~5개의 프로그램에 참여
- 년 1개~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
- 참여하지 못함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9. 귀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주로 어디에서 참여하십니까?

응답 28개



- 행정복지센터(자치센터프로그램)
- 도서관
-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공간(주민공동이...)
- 문화예술 강습소(단체) 등 공방 및 체험시설
- 야외 및 공원시설
- 문화재단 운영 공간
- 없음
- 대학생이 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관련...

▲ 1/2 ▼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21. 귀하께서 생각하는 1권역(검암경서동, 연희동)에 필요한 문화활동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응답 2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23. 제1권역(검암경서동, 연희동)에서 신중년(50대)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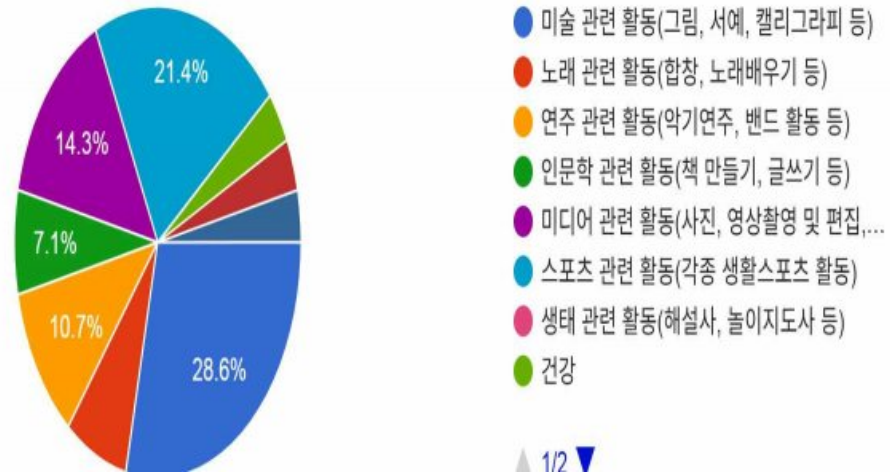
응답 2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24. 제1권역(검암경서동, 연희동)에서 신중년(50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원했으면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응답 2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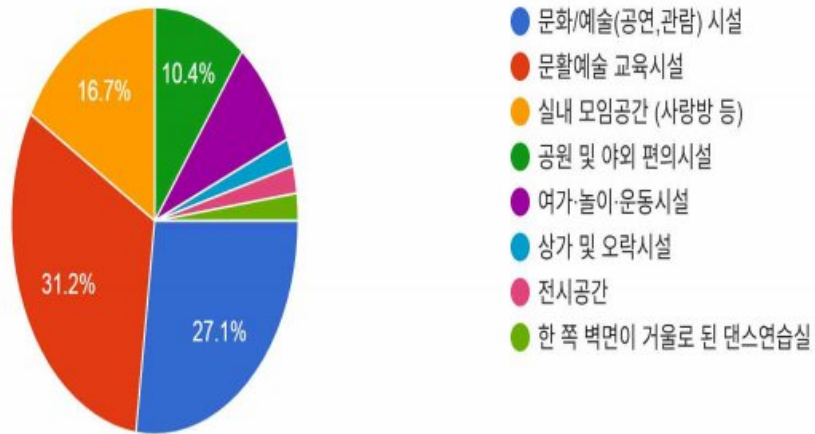
①-1 1권역(신중년 중심) 설문조사 분석

- 이웃과의 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묻는 질문에 '문화예술 교육시설'이 32.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문화 활동은 '마을 축제'로 35.7%를 차지했다.
-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35.7%)'이 가장 높았다.
-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5%로 매우 높았다.
- 또한, 지역문화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78.6%가 '매우 긍정적이다'로 답했다.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냐'는 질문에는 60.7%가 '매우 관심 있음'을 택했다.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년 1개-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가 42.9%로 가장 높았다.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주로 참여하는 장소로는 '도서관'이 25%로 가장 높았고,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1.4%로 뒤 이었다.
- 1권역(검암경서동, 연희동)에 필요한 문화활동의 방향을 묻는 질문엔, 35.7%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활동'이라 답했고, 25%가 '주민의 생활 욕구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라고 답했다.
- 1권역에서 신중년(50대)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스포츠 관련 활동'이라고 32.1%가 응답했으며, '노래 관련 활동'과 '미술 관련 활동'에 14.3%가 응답했다.
- 1권역에서 신중년(50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원했으면 하면 활동으로는 1위가 '미술 관련 활동(28.6%)', 2위가 '스포츠 관련 활동(21.4%)', 3위가 '미디어 관련 활동(14.3%)'이 차지했다.

② 2권역(청소년) 설문조사

11. 이웃과의 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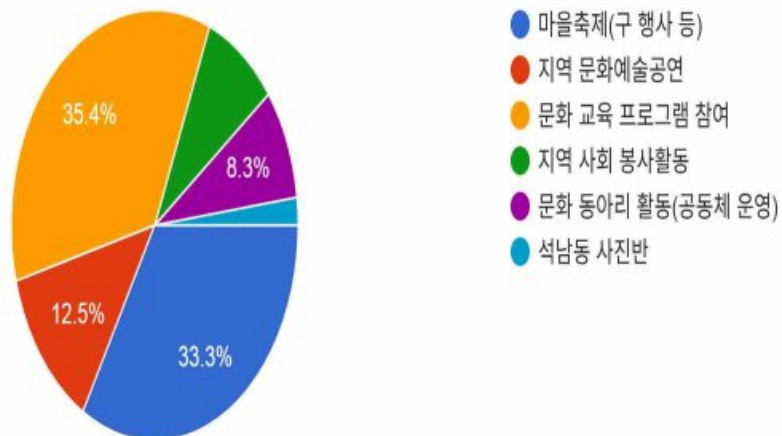
응답 4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취

1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참여한 문화 활동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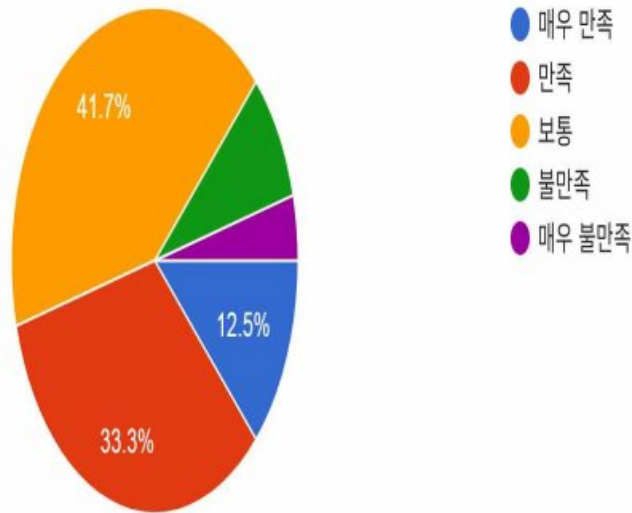
응답 4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취

13. 귀하는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환경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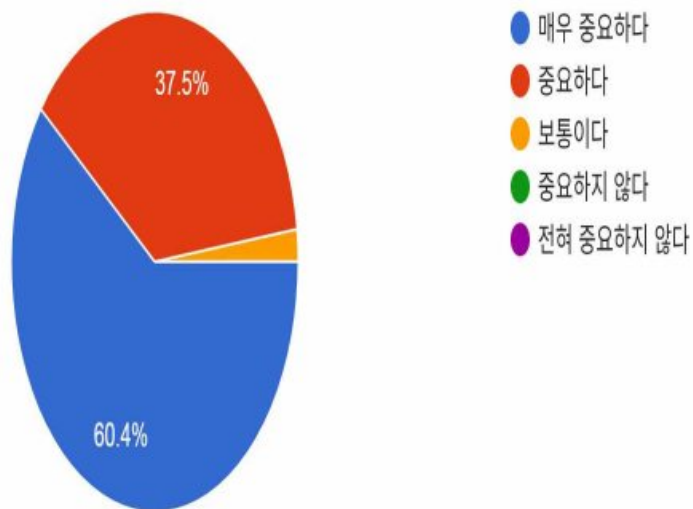
응답 4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4.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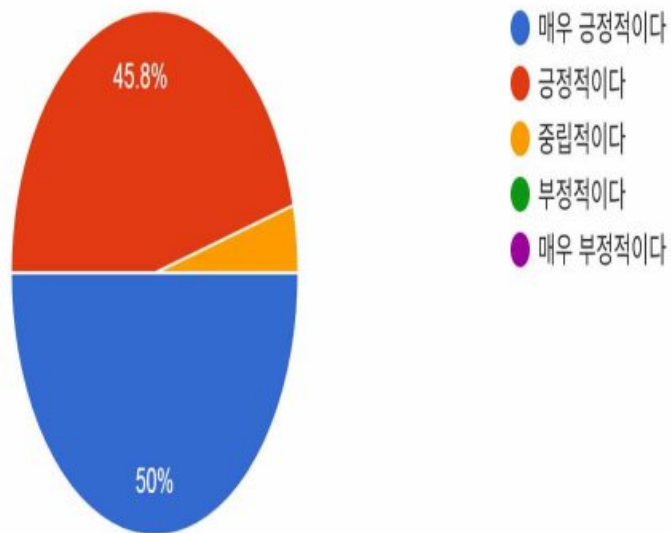
응답 4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5. 지역문화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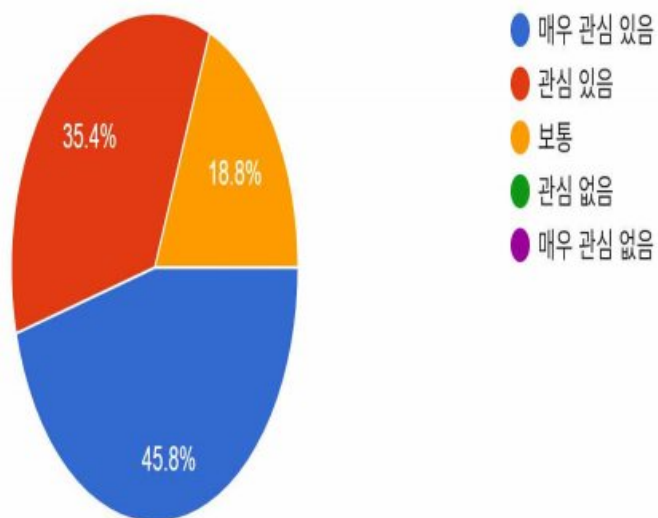
응답 4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7. 귀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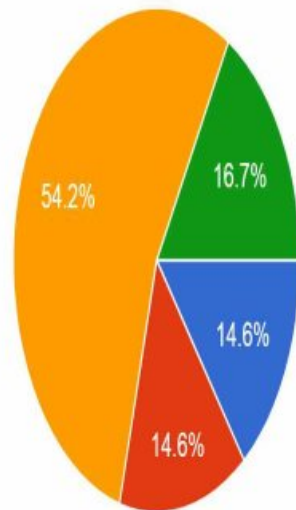
응답 4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8. 귀하는 문화예술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응답 4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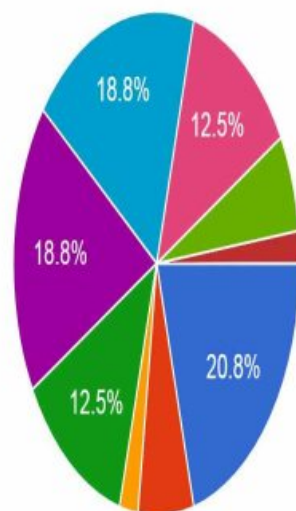


- 년 5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
- 년 3개~5개의 프로그램에 참여
- 년 1개~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
- 참여하지 못함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9. 귀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주로 어디에서 참여하십니까?

응답 4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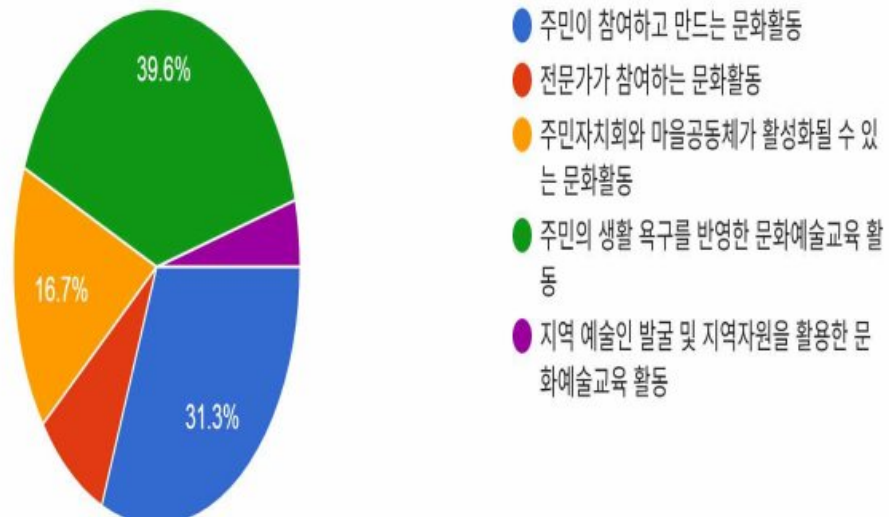


- 행정복지센터(자치센터프로그램)
- 도서관
-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공간(주민공동이용 시설)
- 문화예술 강습소(단체) 등 공방 및 체험시설
- 야외 및 공원시설
- 문화재단 운영 공간
- 없음
- 학교
- 타지역 문화재단!!@서구주민인대 저+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21. 귀하께서 생각하는 2권역(청라동)에 필요한 문화활동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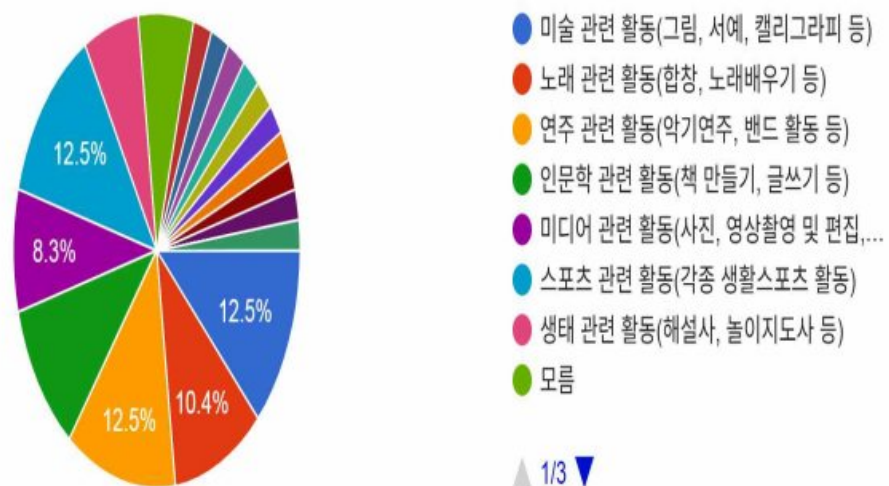
응답 4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23. 제2권역(청라1동~3동)에서 청소년(10대)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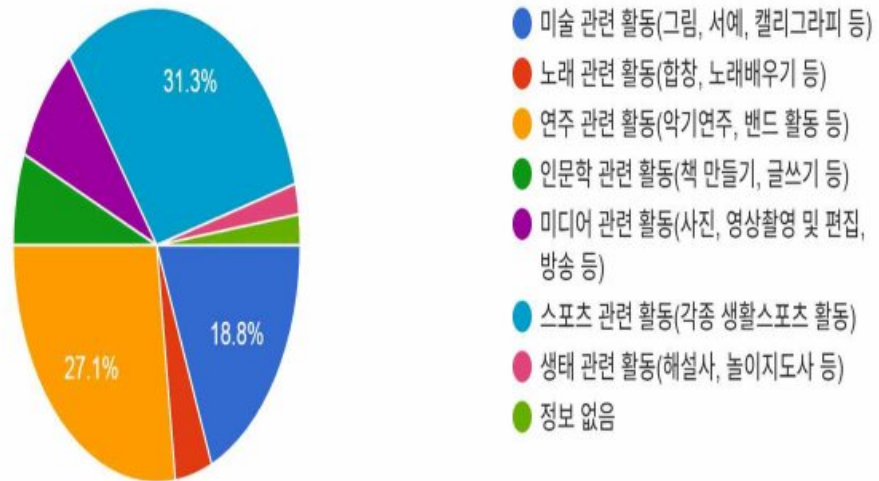
응답 4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24. 제2권역(청라1동~3동)에서 청소년(10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원했으면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응답 48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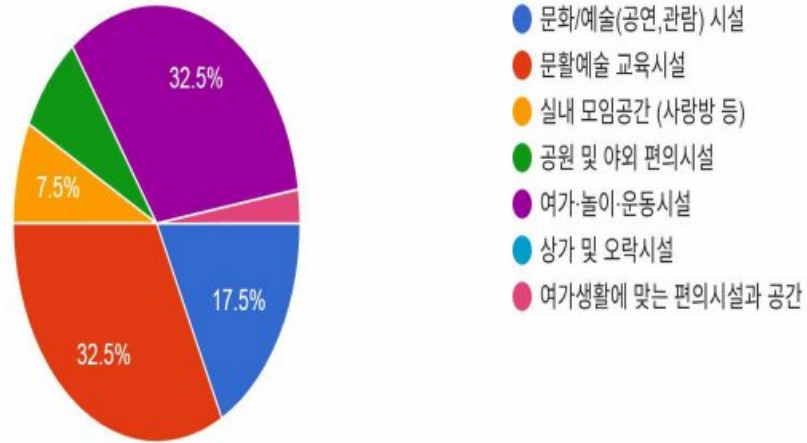
## ②-1 2권역(청소년) 설문조사 분석

- 이웃과의 여가 활동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시설'이 31.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문화 활동은 '마을 축제'로 33.3%를 차지했다.
-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33.3%)'이 가장 높았다.
-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0.4%로 매우 높았다.
- 또한, 지역문화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50%가 '매우 긍정적이다'로 답했다.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나'는 질문에는 45.8%가 '매우 관심 있음'을 택했다.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년 1개~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가 54.2%로 가장 높았다.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주로 참여하는 장소로는 '행정복지센터'가 20.8%로 가장 높았고, '문화재단 운영 공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8.8%로 뒤 이었다.
- 2권역(청라동)에 필요한 문화활동의 방향을 묻는 질문엔, 39.6%가 '주민의 생활 욕구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라 답했고, 31.3%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활동' 이라고 답했다.
- 2권역에서 청소년(10대)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스포츠 관련 활동'과 '미술 관련 활동' 이라고 12.5%가 응답했으며, '노래 관련 활동'에 10.4%가 응답했다.
- 2권역에서 청소년(10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원했으면 하면 활동으로는 1위가 '스포츠 관련 활동(31.3%)', 2위가 '연주 관련 활동(27.1%)', 3위가 '미술 관련 활동(18.8%)'이 차지했다.

③ 4권역(시니어) 설문조사

11. 이웃과의 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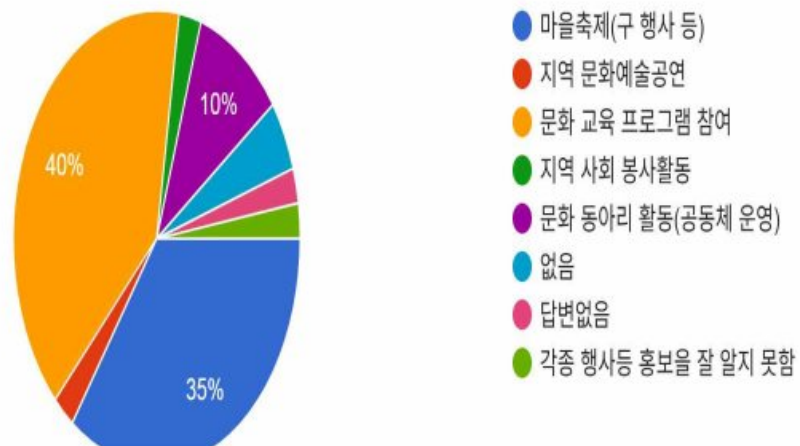
응답 40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참여한 문화 활동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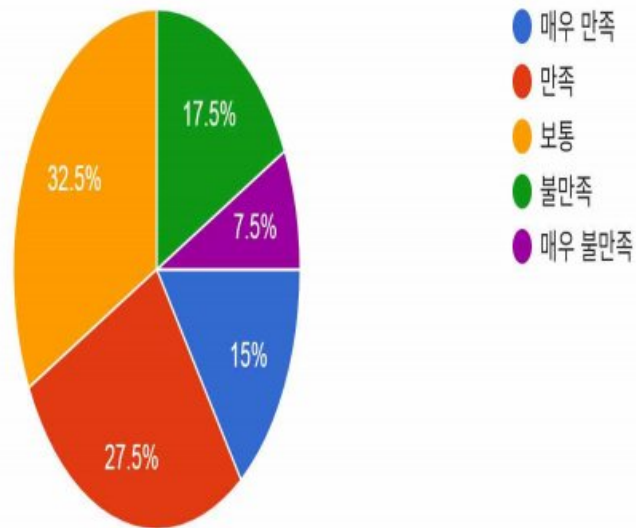
응답 40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3. 귀하는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환경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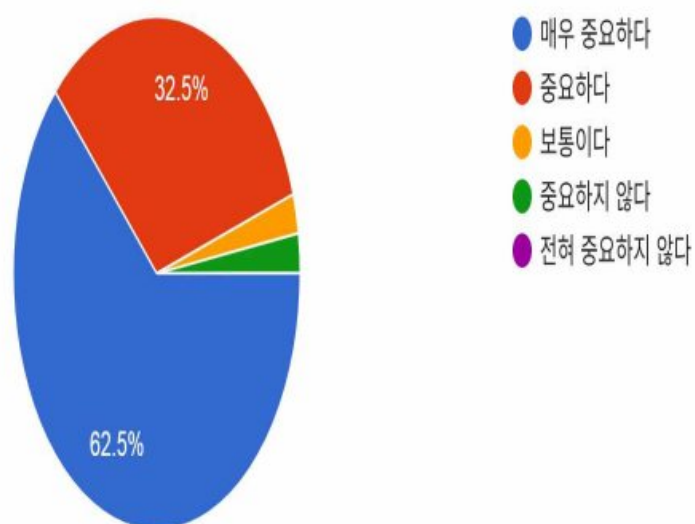
응답 40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4.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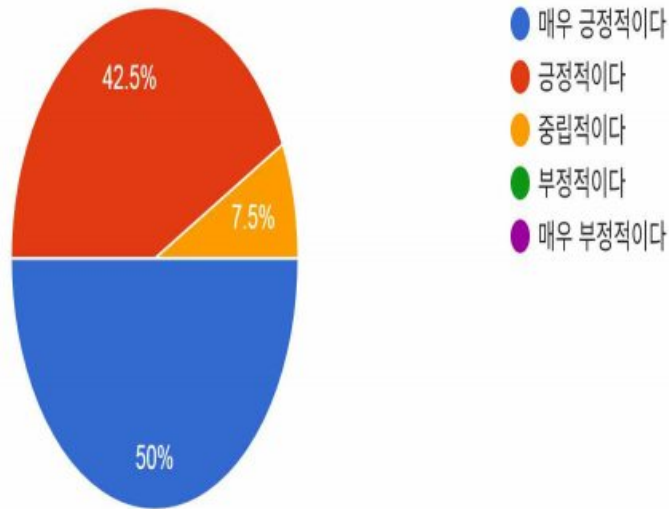
응답 40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5. 지역문화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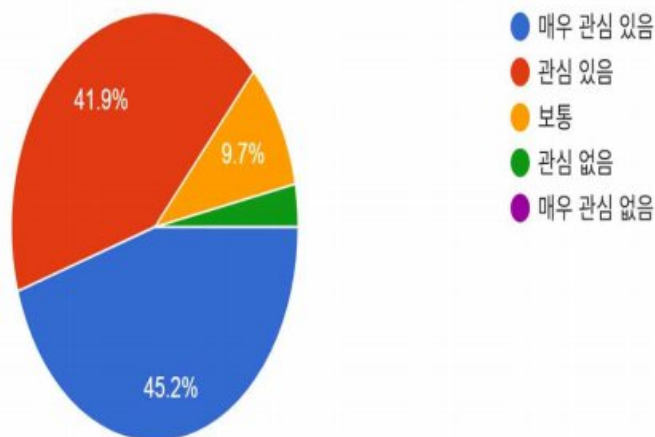
응답 40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7. 귀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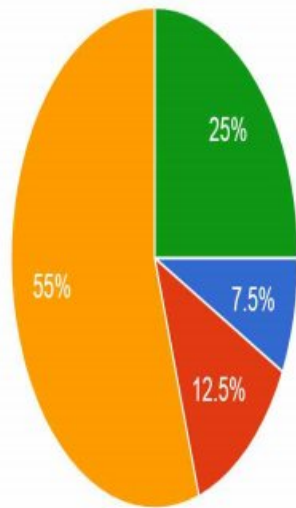
응답 31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8. 귀하는 문화예술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응답 4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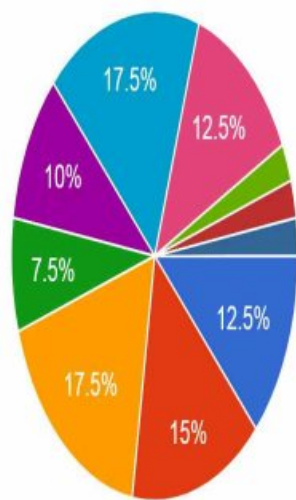


- 년 5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
- 년 3개~5개의 프로그램에 참여
- 년 1개~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
- 참여하지 못함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9. 귀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주로 어디에서 참여하십니까?

응답 4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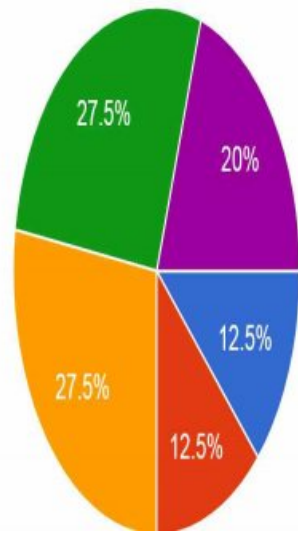
- 행정복지센터(자치센터프로그램)
- 도서관
-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공간(주민공동이...)
- 문화예술 강습소(단체) 등 공방 및 체험시설
- 야외 및 공원시설
- 문화재단 운영 공간
- 없음
- 서구평생학습관

▲ 1/2 ▼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21. 귀하께서 생각하는 제4권역(석남1동~3동, 가좌1동~4동)에 필요한 문화활동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응답 4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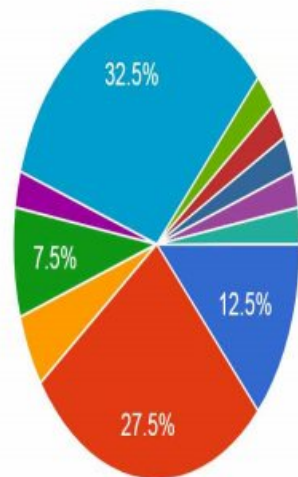


- 주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문화활동
-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활동
-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활동
- 주민의 생활 욕구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 지역 예술인 발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23. 제4권역(석남1동~3동, 가좌1동~4동)에서 시니어(60대)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40개



- 미술 관련 활동(그림, 서예, 캘리그래피 등)
- 노래 관련 활동(합창, 노래배우기 등)
- 연주 관련 활동(악기연주, 밴드 활동 등)
- 인문학 관련 활동(책 만들기, 글쓰기 등)
- 미디어 관련 활동(사진, 영상촬영 및 편집, ...)
- 스포츠 관련 활동(각종 생활스포츠 활동)
- 생태 관련 활동(해설사, 놀이지도사 등)
- 노후된곳에맞는 문화예술교육이 안되고있음

▲ 1/2 ▼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24. 제4권역(석남1동~3동, 가좌1동~4동)에서 시니어(60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원했으면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응답 40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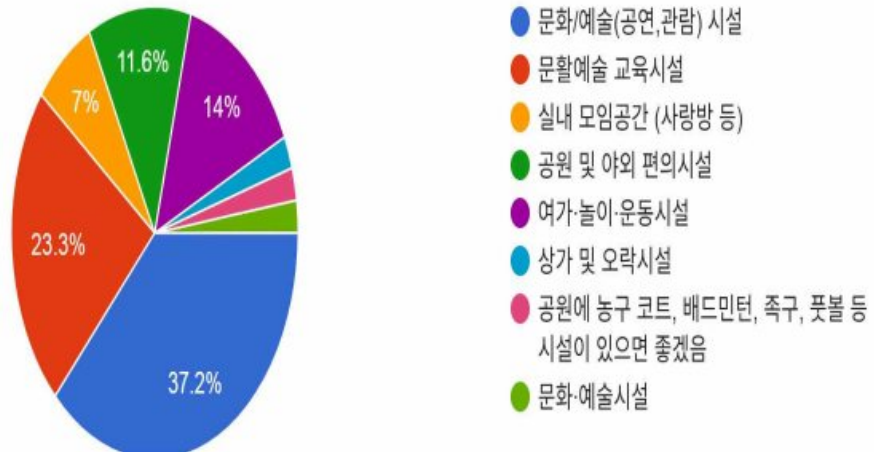
### ③-1 4권역(시니어) 설문조사 분석

- 이웃과의 여가 활동을 위해 '여가·놀이·운동시설', '문화예술 교육시설'이 32.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문화 활동은 '문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33.3%를 차지했다.
-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32.5%)'이 가장 높았다.
-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2.5%로 매우 높았다.
- 또한, 지역문화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50%가 '매우 긍정적이다'로 답했다.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냐'는 질문에는 45.2%가 '매우 관심 있음'을 택했다.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년 1개~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가 55%로 가장 높았다.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주로 참여하는 장소로는 '문화재단 운영 공간',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17.5%로 가장 높았고, '도서관'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5%로 뒤 이었다.
- 4권역(석남1~3동,가좌1~4동)에 필요한 문화활동의 방향을 묻는 질문엔, 27.5%가 '주민의 생활 욕구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문화활동'이라 답했다
- 4권역에서 시니어(60대)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스포츠 관련 활동'이라고 32.5%가 응답했으며, '생태 관련 활동'에 27.5%가 응답했다.
- 4권역에서 시니어(60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원했으면 하면 활동으로는 1위가 '스포츠 관련 활동(32.5%)', 2위가 '미술 관련 활동(20%)', 3위가 '노래 관련 활동(17.5%)'이 차지했다.

④ 5권역(아동) 설문조사

11. 이웃과의 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응답 43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참여한 문화 활동은 무엇입니까?

응답 4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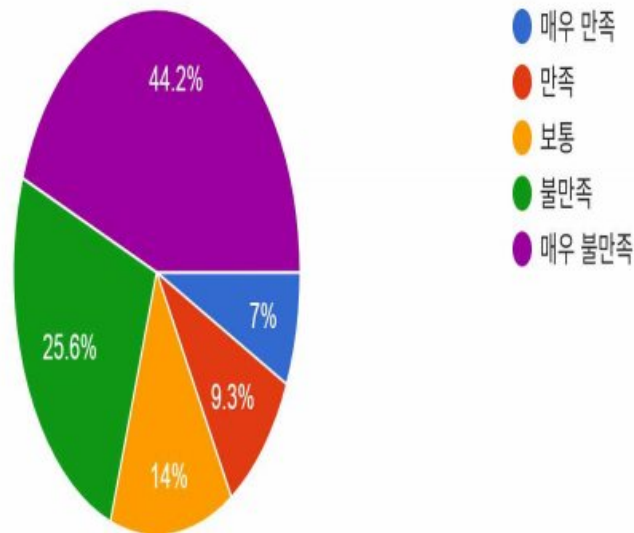


▲ 1/2 ▼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3. 귀하는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환경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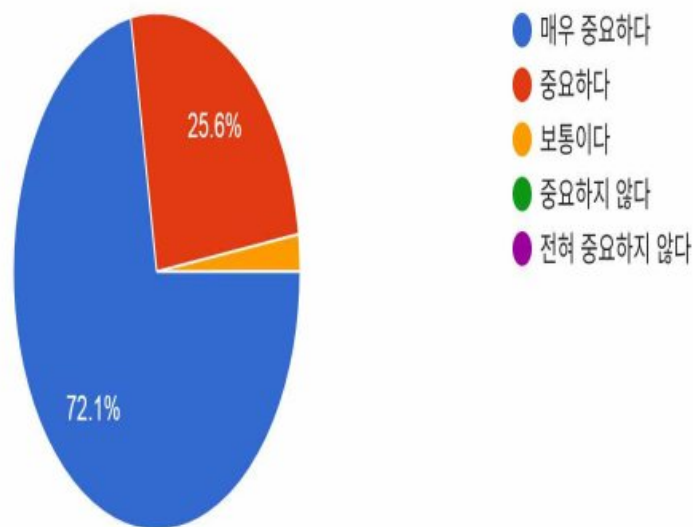
응답 43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4.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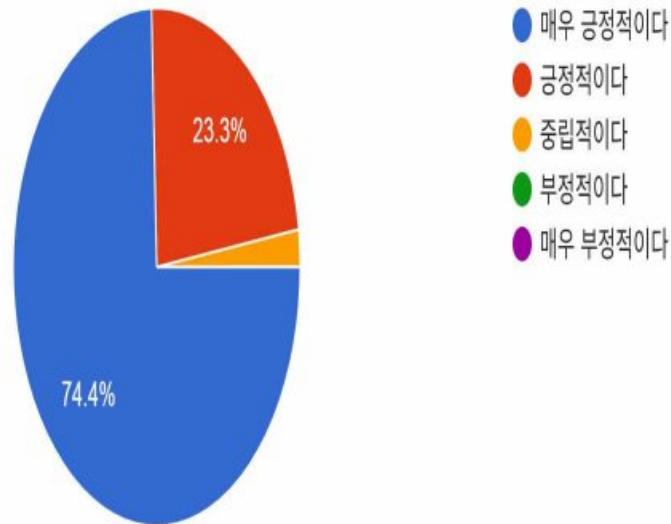
응답 43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5. 지역문화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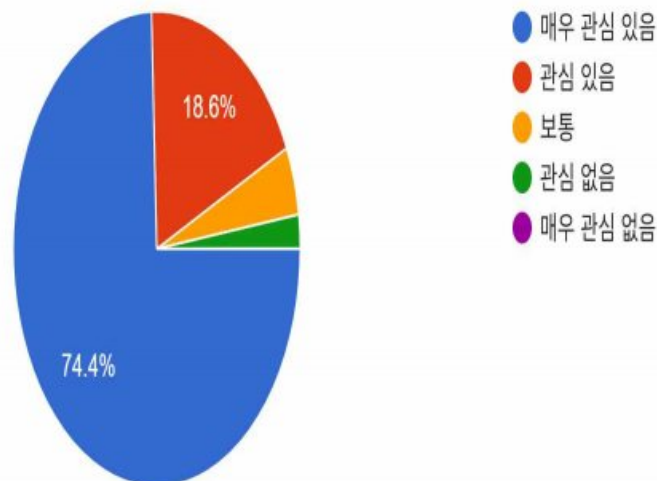
응답 43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7. 귀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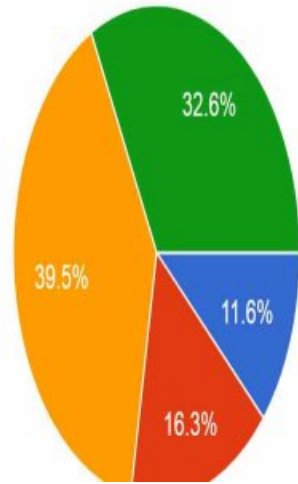
응답 43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8. 귀하는 문화예술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응답 4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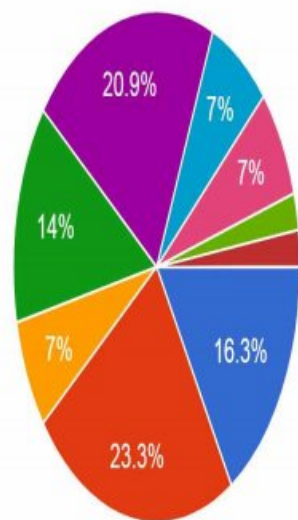


- 년 5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
- 년 3개~5개의 프로그램에 참여
- 년 1개~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
- 참여하지 못함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19. 귀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주로 어디에서 참여하십니까?

응답 4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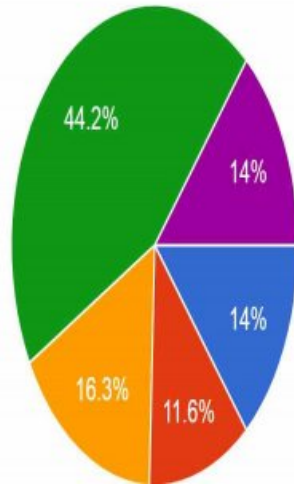


- 행정복지센터(자치센터프로그램)
- 도서관
-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공간(주민공동이용 시설)
- 문화예술 강습소(단체) 등 공방 및 체험시설
- 야외 및 공원시설
- 문화재단 운영 공간
- 없음
- 서울에서 하는 문화공연교육참가
- 타지역 시설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21. 귀하께서 생각하는 제5권역(오류왕길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아라동)에 필요한 문화활동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응답 4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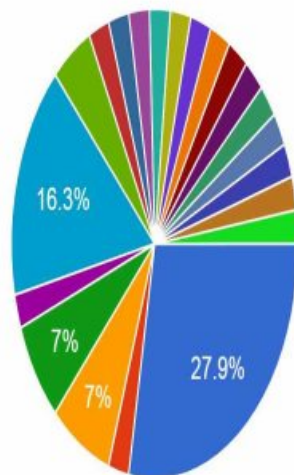


- 주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문화활동
-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활동
-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활동
- 주민의 생활 욕구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 지역 예술인 발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23. 제5권역(오류왕길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아라동)에서 아동(6~10세)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43개



- 미술 관련 활동(그림, 서예, 캘리그래피 등)
- 노래 관련 활동(합창, 노래배우기 등)
- 연주 관련 활동(악기연주, 밴드 활동 등)
- 인문학 관련 활동(책 만들기, 글쓰기 등)
- 미디어 관련 활동(사진, 영상촬영 및 편집, ...)
- 스포츠 관련 활동(각종 생활스포츠 활동)
- 생태 관련 활동(해설사, 놀이지도사 등)
- 잘 모름

▲ 1/3 ▼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24. 제5권역(오류왕길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아라동)에서 아동(6~10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원했으면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응답 43개



▲ 서로-예술노리 주민의견 수렴 데이터 발췌

#### ④-1 5권역(아동) 설문조사 분석

- 이웃과의 여가 활동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시설(관람시설)'이 37.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문화 활동은 '문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25.6%를 차지했다.
-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44.2%)'이 가장 높았다.
-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2.1%로 매우 높았다.
- 또한, 지역문화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74.4%가 '매우 긍정적이다'로 답했다.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냐'는 질문에는 74.4%가 '매우 관심 있음'을 택했다.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년 1개-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가 39.5%로 가장 높았다.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주로 참여하는 장소로는 '도서관'이 23.3%로 가장 높았고, '야외 및 공연시설'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0.9%로 뒤 이었다.
- 5권역(오류왕길동,검단동,블로대곡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아라동)에 필요한 문화활동의 방향을 묻는 질문엔, 44.2%가 '주민의 생활 욕구를 반영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이라고 답했다
- 5권역에서 아동(6-10세)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미술 관련 활동'이라고 27.9%가 응답했으며, '스포츠 관련 활동'에 16.3%가 응답했다.
- 5권역에서 아동(6-10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원했으면 하면 활동으로는 1위가 '스포츠 관련 활동(27.9%)', 2위가 '인문학 관련 활동', '미술 관련 활동'(16.3%), 3위가 '연주 관련 활동(9.3%)'이 차지했다.

나) 서로-예술노리사업

**인천서구문화재단, 지역특화형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서로-예술노리’ 추진**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지역 예술강사 대상 공모접수

박성도 기자 | 기사입력 2025/07/14 [1351] [본문가기](#)

▲ 인천서구문화재단, 지역특화형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서로-예술노리’ 추진<sup>55)</sup>

- 서로-예술노리 사업은 인천 서구를 5개 권역/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방향 찾기 설문조사 및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지역 및 대상층의 특성과 문화성을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5 기조단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운영되는 <서로드림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 특화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 서로-예술노리

**공모사업 안내**

**서구 예술강사 대상 권역/생애주기 특화형 문화예술교육 공모!**

접수기간	2025.7.14.(월) ~ 2025.7.27.(일) 자정까지 [14일간]
지원대상	서구 지역예술강사로 구성된 문화예술교육단체(팀) * 단체(팀)별 최소 2인 이상 예술강사진 구성 * 필수 : 서구예술강사 DB 등록 * 서구기주 예술강사 or 서구소재 단체 소속 예술강사
지원규모	강사비, 재료비, 기획개발비, 성과공유회 비용 지원 * 재단 직접 집행
접수방법	E-mail 접수 (choi@iscf.kr)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 (공모공고문 참조) 인천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일일마당 > 고사공고
결과발표	2025.8.1. (금) 예정
향후일정	8월 OT 및 프로그램 개발, 10-11월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공유회

**권역별 공통 키워드 : 생활밀착 체험형 활동적인 문화예술교육**

<b>1권역</b>	연희, 검암, 경서, 공현, 백석, 시천, 심곡	<b>2권역</b>	청라
<b>신중년 키워드</b>	1) 신체활동 2) 미술기반 미디어아트 3) 전통문화 담기	<b>청소년 키워드</b>	1) 협동작업 2) 아이들 체험 노래 만들기 3) 미디어 만들기 (유튜브비디오, 숏츠 등)
<b>4권역</b>	석남, 가좌	<b>5권역</b>	검단, 오류, 불포, 당하, 원당, 아라, 대곡, 마전, 팔길
<b>시니어 키워드</b>	1) 몸으로 움직임 2) 자신의 이야기 담기 3) 음악, 그림, 웃음이 담긴 복합 활동	<b>아동 키워드</b>	1) 음악활동 2) 자기표현력 높이기 3) 자연에서 생태 + 미술활동

주최&주관 인천서구문화재단

후원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 서로-예술노리공모사업 포스터

55) 브레이크 뉴스, 2025년 7월 14일 기사, <https://www.breaknews.com/1132447>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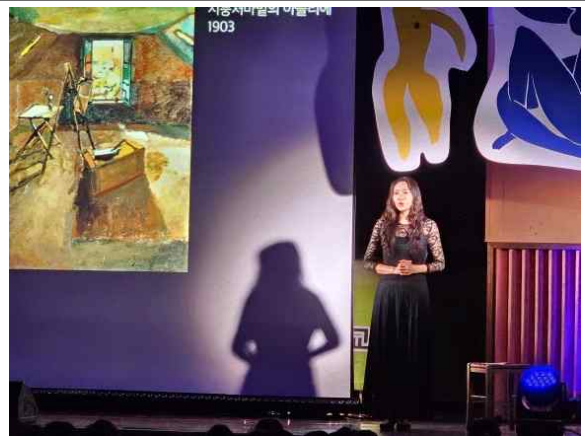
- ① 서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 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② 문화예술교육의 저변을 확대하여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주민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문화복지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 ③ 권역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술교육으로, 교육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예술강사의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 내용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예술교육의 다양성과 효과성 증대를 기대 할 수 있다.

다) 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 [음악으로 그리는 미술관]



▲ 음악으로 그리는 미술관 포스터 발췌

- 운영기간 : 2025년 5월 1일(목)~2025년 5월 31일(토)
- 신청대상 : 인천 서구 내 초·중등학교 단체
- 주요내용 : 음악 감상과 미술 창작을 결합한 융합형 예술 체험으로 학생들이 음악을 듣고 느낀 감정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체험 중심 수업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였다.
- 기대효과 :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과 미술을 함께 경험하여 예술적 소양을 함양 할 수 있으며, 창의적 표현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될 수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 [음악으로 그리는 미술관] 프로그램 현장 사진

## 4. 사회적 고립인구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정책 포럼

### 1) 포럼 개요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15:00 ~ 17:00
- 참석 대상 : 인천 서구의회 의원, 인천·부평구 문화재단 관계자, 학계 전문가, 심리상담·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정책연구원 리더스, 언론 및 일반시민
- 은둔형 외톨이, 1인 가구, 고립 청년·노인 등 사회적 고립인구의 심리·정서 회복 및 사회적 관계망 복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모색
- 인천 서구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녹청자 활용 교육·산업화 모델 제안
- 지역 정체성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

### 2) 발제 1 :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방향성

#### (1) 연구 배경

- 사회적 고립 심화,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은둔·고립 청년 증가 등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제 발생
- 문화예술은 주민의 정서적 치유, 공동체 회복, 사회적 연대 강화의 대안적 수단으로 부각됨

#### (2)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 중앙·광역 단위에서 추진해온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기초자치체로 확산
- 인천 서구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주민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 복지를 실현 할 가능성이 큼

#### (3) 프로그램 현황과 한계

- 찾아가는 예술학교, 드림 프로젝트, 문화배달 등 주민 참여 확대 시도 활발
- 심리·정서 치유 목적의 프로그램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문화 향유 확대가 중심

#### (4) 향후 방향성

- 대상 확대 : 아동·청소년에서 고령자, 은둔·고립 인구까지 포괄
- 목표 다변화 : 단순 문화 향유 → 심리정서적 치유, 삶의 질 향상

- 프로그램 혁신 : 융합형 교육(예술+심리+복지+과학),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 문화재단과 협력, 주민 참여형 운영체계 구축

### 3) 발제 2 : 농청자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굿즈 개발 방안

#### (1) 농청자의 가치

- 고려시대 이전부터 대량생산된 생활용 도자기
- 투박하지만 독창적인 색감·형태를 지녀 한국 도자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 2002년 ‘농청자 도요지 사료관’ 개관, 2012년 ‘농청자 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후 지역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 (2) 교육 프로그램 제안

- 체험형 교육 : 초·중·고 학생, 성인, 노인 등 맞춤형 도자기 제작 체험
- 융합형 수업 : 역사·미술·과학·재료학 연계, 예술치유·창의성 증진 효과
- 디지털 체험 : VR·AR을 통한 농청자 제작 과정·역사 현장 재현
- 가족·지역 공동체 참여 : 생활 도자기 제작, 다문화 가정 대상 프로그램, 판화·부조·도안 창작 활동

#### (3) 굿즈 개발 방안

- 전통과 현대의 결합 문양·색감·질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 상품화 전략 : 패션·인테리어·생활소품 적용, 박물관·미술관 MD와 연계
- 친환경·디지털 굿즈 : 지속가능 소재, NFT·AR·VR 활용
- 참여형 공모전 : "나만의 농청자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4) 종합 토론 요지

- 문화예술교육의 과제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문화복지와 치유적 기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설계 필요
- 농청자 활용 : 지역 고유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상품화 모델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작자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정책적 제언

- ① 중앙-지자체 협력 강화 및 예산 안정적 확보
- ②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고립 완화 프로그램 확대
- ③ 문화유산 기반 콘텐츠의 현대적 재해석 및 산업화 추진
- ④ 주민·청년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 5) 기대효과 종합

- 사회적 고립인구 치유 모델 발굴 :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한 심리적 회복 및 관계망 재구축
- 지역 문화자원 활용 극대화 : 녹청자박물관, 지역 축제, 관광산업과 연계
- 정책 확산 및 네트워크 강화 : 지자체 - 문화기관 - 민간단체 협력 구조 구축
- 청년 일자리 창출 : 공방, 굿즈 제작, 관광 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 창출
-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굿즈 판매, 관광 연계, 문화 콘텐츠 산업 시너지 효과

## 6) 결론

이번 포럼은 인천 서구가 직면한 사회적 고립 문제와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발제 1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치유적 기능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확산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발제 2는 지역문화유산인 녹청자를 활용한 교육·산업화 모델을 통해 문화예술이 지역 정체성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인천 서구는 “주민 정서 치유와 문화적 자부심 강화”라는 목표 아래

- ① 사회적 고립인구를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축
- ②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산업·관광 연계 모델 개발
- ③ 중앙 - 지자체 -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실질적 정책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분	핵심 내용
포럼 의의	인천 서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와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 제시
발제 1 요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치유적 기능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확산할 필요성 강조
발제 2 요지	지역문화유산인 녹청자를 활용한 교육·체험 및 상생 모델을 통해 정체성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제시
향후 3대 추진 축	① 사회적 고립인구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축 ② 지역문화유산 기반 지속가능한 산업·관광 연계 모델 개발 ③ 중앙 - 지자체 -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강화
비전	“주민 정서 치유와 문화적 자부심 강화”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도시 도약을 위한 실질적 정책 기틀 마련

<포럼 사진>



▲ 사회적 고립인구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포럼 단체사진('25.8.28.(목))

##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 1. 국내 문화예술교육 우수 사례

#### 1) 부산문화재단 「예술을 담다」 - 의료복지 연계형 예술치유 프로그램<sup>56)</sup>

##### (1) 사업개요

부산문화재단은 2022년 시범 특화사업으로 ‘예술을 담다(Art in Daily Life)’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지역사회 고령층 주민을 대상으로 예술치유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산시 각 구·군의 보건·의료 공공기관(마을건강센터) 과 협력하여,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예술활동을 통해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화재단은 매년 공모를 통해 ‘예술을 담다’를 총괄할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해당 단체는 음악·무용·미술·글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모집한다. 이후 예술가들은 각 동네로 직접 찾아가 10회차 이상 회기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을건강센터는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생활 속 돌봄 수요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술체험을 넘어, 예술을 매개로 한 정서치유·공동체 재활성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56) 국제신문) “부산문화재단 주민 밀착 예술치유 프로그램 호응…올해 사업 키운다.”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250407.22017001850&utm\\_source=chatgpt.com](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250407.22017001850&utm_source=chatgpt.com)

(2) 주요 운영 내용 및 성과

구분	내용
사업 주체	부산문화재단
협력 기관	부산시 18개 구·군 마을건강센터
운영 시기	2022년 시범 → 2023~2025년 본격 확대
대상	고령층 및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
예술분야	음악, 무용, 미술, 글쓰기 등 다분야 융합형
운영 방식	예술가가 지역으로 찾아가 10회차 이상 회기별 예술교육 실시
성과	① 참여자 만족도 최고(마을건강센터 조사 결과) ② 고령층 정서 안정 및 우울감 완화 효과 입증 ③ 참여 예술가 35명, 센터 18곳 참여(2024년 기준) ④ 2025년에는 30개 이상 센터로 확대 예정

(3) 파생 및 확장 사업

2024년 문화재단은 병원 내 예술활동을 확대한 「마음을 담다」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이는 다음병원·좋은부산요양병원 등과 협력하여 환자의 정서·건강 회복을 돕는 ‘병원 예술(Hospital Art)’ 프로그램으로, 예술가의 상주형 창작·참여 활동을 통해 의료 현장 속 정서치유 효과를 실증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단은 『마음을 담다 - 병원에서 정원으로, 소망에서 희망으로』와 『마음을 담다 - 현장 인터뷰 및 결과 보고』 두 권의 책자를 발간해, 현장 운영사례·참여 인터뷰·심리적 변화결과 등을 기록하였다.

이 사례는 의료·복지·문화예술의 통합형 협력모델로서 향후 전국 지자체의 예술치유정책 설계에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 (4) 시사점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을 담다」는 지역의 보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찾아가는 예술 치유’ 모델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수사례로 꼽힌다.

- ① 지속형 회기제 예술교육을 통한 참여자 심리변화 추적이 가능하며, 단발성 체험을 넘어선 정서회복 효과가 입증됨
- ② 문화재단 - 마을건강센터 - 예술가의 3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복지 행정의 통합적 운영체계를 구현함
- ③ 정량·정성 평가체계(만족도, 우울감·정서지표 등)를 갖추어, 향후 정책적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한 성과를 도출함
- ④ 의료복지시설 연계형 문화예술교육의 표준 모델로서, 인천 서구의 지역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협업 모델 설계 시 적용이 용이함

#### (5) 인천 서구 적용 가능성

인천 서구 역시 고령층 비중이 높고 사회적 고립계층의 정서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부산의 「예술을 담다」 사례는 서구형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실질적 참고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보건소와 문화재단의 유기적 협력, 찾아가는 예술가 네트워크 구성,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회기제·성과평가제 도입 등은 서구가 향후 추진할 ‘마음건강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직접적으로 접목 가능한 구조이다.



▲ 실제 프로그램 모습



▲ 문화재단 '마음을 담다' 책자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음치유, 봄처럼」 -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형 미술치유 프로그램<sup>57)</sup>

### (1) 사업개요

서울 동대문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23년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마음치유, 봄처럼」 하반기 관계자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예술을 매개로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대문구는 2022년 11월 자살예방협의회에서 제시된 구청장(이필형)의 정책 제안을 계기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그림치유 기반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57) 자치행정신문) “동대문구,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우수사례 선정”  
[http://www.ddm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281291](http://www.ddm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281291)

(2) 주요 운영 내용 및 성과

구분	내용
사업명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마음치유, 봄처럼」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주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협력 기관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명	「발아(BAL:A): 틱움을 위한 미술」
대상	중장년층 우울 및 자살사고 위험군, 자살 유가족 등 8명
운영 방식	이화여대 예술치료 전문가가 진행하는 10회기 미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결과전시회 개최
성과	① 전 회기 참여율 100%에 가까운 지속참여 성과 ② 참여자들의 자존감·자신감 향상 및 사회적 소속감 회복 ③ 예술치료사의 전문성과 공공정신건강복지체계의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사례

(3) 프로그램 내용과 특징

본 프로그램은 미술을 통해 정서적 응어리를 해소하고, 내면의 감정 표현을 유도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발아(BAL:A)’ 프로그램은 “틱움”과 “성장”을 상징하는 콘셉트로,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시각적 언어로 삶의 회복 과정을 표현하도록 설계되었다.

2023년 12월 28~31일, 이화여자대학교 대산갤러리에서 열린 결과보고 전시회에서는 참여자 8명이 작가로 참여하여, 각자의 작품을 직접 전시하고 관람객과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사회적 소속감 회복의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 공소연 예술치료사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참여하였으며, 한 참여자는 ‘다양한 작품활동을 해보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다.

#### (4) 시사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마음치유, 봄처럼」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학 산학협력단의 협업을 통해 지역정신건강정책과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통합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상자 발굴력 + 대학 전문 인력의 임상예술치료 역량을 결합하여, 공공예술치유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 참여율·지속성·자존감 향상 등 정량·정성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향후 정책평가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 결과전시회(대산갤러리)를 통해 프로그램이 단순한 심리치유를 넘어, ‘사회적 재참여’를 실현한 사례로 확장되었다.

(5) 인천 서구 적용 가능성

인천 서구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치유 기반 고립·은둔청년·고령층 지원사업」(가칭)에 있어, 동대문구 사례는 전문기관 협업형 구조의 실질적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서구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청년센터·노인복지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 ① 전문 예술치료사 매칭
- ② 정신건강 사례관리 대상자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도입
- ③ 참여자 성과전시 및 지역공유회 운영으로 확장

을 이룬다면, 정서적 회복·자존감 증진·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실제 프로그램



▲ 실제 프로그램 진행모습



▲ 실제 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 포스터



▲ 실제 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 포스터

3) 서울특별시 「문화약자와의 동행」 - 문화복지 기반 취약계층 문화예술접근 확대 모델<sup>58)59)</sup>

(1) 사업개요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갈등 및 문화향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문화예술분야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사업으로 「문화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로 경제적·신체적 여건·연령적 이유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적은 ‘문화약자’ 약 63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한해 문화예술 접근 확대를 위해 약 635억 원을 투입했다.

주요 대상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청년층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세대)
- ② 신체적 불편으로 문화예술접근이 어려운 시민
- ③ 경제적 취약계층
- ④일반시민의 생활 속 문화환경 개선

---

58) 서울특별시) " 청년문화패스, 천원의 행복... '문화약자와의 동행' 추진 "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8249993?utm>

59) 컬처타임즈 "서울시, '문화약자와의 동행' 635억 투입...서울청년문화패스,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미술관 관람지원,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지원 등" [https://www.c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4&utm\\_](https://www.c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4&utm_)

(2) 주요 운영 내용 및 성과

구분	내용
사업명	문화약자와의 동행
지원규모	약 635억 원 투입 (2023년 기준)
대상계층	청년(만19세 등), 신체장애·특수학교학생,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청년문화패스 : 만19세 청년 대상 1인당 연간 2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li> <li>-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미술관 관람지원 사업 : 32개 특수학교 학생·교원 약 6,200명 대상</li> <li>-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사업: 음악·미술 분야 재능 있는 학생 260명 대상</li> <li>- 서울문화누리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약 45만 명 대상 문화·여행·체육 활동 통합 지원권 발급</li> <li>- 생활밀착형 무료공연·찾아가는 공연 등 : ‘천원의 행복’, ‘예술로 동행’, ‘서울스태이지11’ 등</li> </ul>
정책철학·연계효과	문화접근성 격차 해소 + 사회갈등 완화 도구로서 문화예술 활용

(3) 특징 및 장점

- 대규모 예산투입과 체계적 대상 설정 : ‘청년층·신체장애·저소득층’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대상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 접근성의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
- 문화복지·일상문화 통합모델 : 단순한 예술교육을 넘어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관람권·무료공연·찾아가는 공연 등을 포함해 문화향유권 확대를 실현함
- 정책연계·사회통합성 : 문화정책이 단순히 향유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갈등완화의 수단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
- 지표기반 평가 및 확대가능성 :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를 도입해 향후 문화·교육·복지 등 통합지표를 통해 정책성과를 모니터링 한다는 점도 주목됨

(4) 인천 서구 적용 가능성

- 인천 서구 역시 고령화·1인가구 증가·은둔청년 등 문화소의 위험군이 존재하므로, 서울시 모델이 갖춘 대상별 맞춤형 지원 구조를 참고하기 적합하다.
- 특히 서구형 사업 설계 시 ‘청년문화패스’처럼 문화바우처 지급형, ‘서울문화누리카드’처럼 저소득·기초수급자 대상 지원형, ‘찾아가는 공연’처럼 배달형 문화접근형을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 또한 서구 내에서 문화접근성 차이가 있는 동(洞) 또는 마을단위 지역을 선택해 생활권 문화공간 확충/무료공연 도입 등을 서울의 무료공연 사례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다.
- 실행 시 KPI 설계에 있어 “참여자 수”, “회차 수”, “이용권 사용률”, “만족도” 등 서울시 모델에서 제시된 지표를 참조할 수 있다.



4) 종합정리(표)

항목	부산문화재단 예술을 담다	동대문구 마음치유, 봄처럼	서울시 문화약자와의 동행
핵심 모델	보건소(건강센터) 연계 찾아가는 회기형 예술 치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 협업 임상형 미술치유	대상별 바우처 /관람·공연·교육 통합 문화복지
주요 대상	고령층·정서돌봄 필요 주민	중장년 우울· 자살위험군·유가족	청년·장애 /특수학교·저소득층 등 대규모
회기/ 방식	10회+ 동네형, 예술가 파견	10회 소그룹 + 전시	바우처·관람지원· 찾아가는 공연 등 다각
성과 포인트	우울감 완화·만족도 최고, 확대요청 다수	지속참여율 ↑, 자존감/소속감 ↑	접근권 확대·지표기반 관리
서구 적용 키워드	보건 인프라 연계·예술가 네트워크·성과평가	전문가 매칭· 사례관리 연계· 성과공유회	혼합형 정책 패키지·KPI 체계화

## 2. 해외 사회적 예술치유 프로그램 사례

### 1) 영국 - ‘예술·건강·웰빙을 위한 전국연합(National Alliance for Arts, Health and Wellbeing)’

#### (1) 개요

영국은 정신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예술·건강·웰빙을 위한 전국연합」을 출범하였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공동으로 주도하며, 지방정부와 민간 자선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네트워크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예술이 개인의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에도 기여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 (2) 주요 운영 내용 및 성과

- 정책체계화 : ‘예술·건강·웰빙 헌장(Charter for Arts, Health and Wellbeing)’ 제정(2012)
- 협력모델 구축 : 보건정책과 문화정책 간 연계를 통해 지역 단위 예술치유 사업을 제도화
- 프로그램 운영 : 각 지방정부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과 사회적 고립계층을 대상으로 창의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 재정 지원 : 자선기금, 복권기금(Lottery Fund), 지자체 예산 등 다원적 재원으로 안정적 지속성을 확보
- 성과 : 예술이 공공의료의 보조수단을 넘어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의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영국 내 ‘예술처방(Social Prescribing)’ 제도의 기반이 됨

#### (3) 특징 및 장점

영국의 예술치유정책은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통합형 거버넌스 구조로, 예술을 복지와 건강의 영역에 제도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단순 치료가 아닌 사회적 관계 회복과 공동체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국가 단위에서 예술 치유를 체계화한 대표 사례이다.

#### (4) 인천 서구 적용 가능성

서구는 지역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유사한 사회예술치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예술처방’ 모델처럼, 주민 맞춤형 예술참여 프로그램을 보건정책 안에 포함함으로써 서구형 ‘문화복지-정신건강 통합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술, 건강, 웰빙을 위한 전국 연합’ 관련 런던 조직인 ‘London Arts in Health Forum(LAHF)’ 홈페이지

## 2) 미국 - 테러 피해자 예술치유 프로그램

### (1) 개요

미국은 대형 재난이나 테러 발생 시 예술을 심리·정서회복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 1995년 오클라호마시터 폭탄테러를 계기로 예술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었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피해자·생존자·구조대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술치유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 (2) 주요 운영 내용 및 성과

- 운영 주체 : 뉴욕대학교 아동연구센터, 지역 박물관, 예술치료사 협회 등
- 대상 : 직접 피해자, 구조활동 참여자, 아동 및 가족
- 프로그램 :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부모-교사 공동참여형 ‘그림으로 나누는 기억’ 프로그램
- 성과 : PTSD, 불안, 죄책감 등 트라우마 증상 완화, 참여자의 자존감 회복, 가족 간 유대 강화
- 확산효과 : 예술치유가 공공정신건강 정책의 실질적 프로그램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음

### (3) 특징 및 장점

테러·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치유는 비언어적 표현 중심의 심리회복 모델로서 효과가 입증되었다. 예술교육기관, 지역문화시설, 심리전문가 간의 협력체계가 확립되어, 예술이 임상 치료를 보완 하는 사회적 치유 도구로 작용하였다.

### (4) 인천 서구 적용 가능성

서구 지역의 재난·사고 피해자, 고립가구, 심리취약계층을 위한 정서지원사업 추진 시, 미국의 사례처럼 지역 박물관·문화센터·대학과 협업하는 예술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지역문화예술 인프라를 정신건강서비스와 연계하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 3) 일본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예술치유 프로젝트

#### (1) 개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사회는 예술을 통한 회복과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역 예술가, 시민단체, 재단 등이 참여한 다양한 커뮤니티 기반 예술치유 활동이 확산되었다.

#### (2) 주요 운영 내용 및 성과

##### ○ 대표사업 ① : 프로젝트 후쿠시마!

- 매년 8월 15일, 방사능 피해지역에서 ‘페스티벌 후쿠시마!’ 개최
- 전국에서 모은 천 조각을 이어 만든 ‘보자기 퍼포먼스’를 통해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회복

##### ○ 대표사업 ② : Yangdaora 프로젝트

- 일본 ‘Today is The Day’ 재단과 싱가포르 ‘The Red Pencil’ 재단 협력
- 후쿠시마 피해 아동 20명을 싱가포르로 초청해 2주간 예술치료 캠프 운영
- 성과 : PTSD<sup>60)</sup> 완화, 예술치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성

#### (3) 특징 및 장점

일본의 예술치유 활동은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 중심의 커뮤니티 아트 모델로 발전하였다. 예술을 단순한 표현이 아닌 ‘사회적 연대의 행위’로 재정의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치유 과정을 함께 만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

60)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4) 인천 서구 적용 가능성

서구 또한 재난·환경문제 등 지역적 위기 대응 정책에서 예술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축제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재난심리지원과 결합하여 주민의 참여와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 프로젝트 후쿠시마! 이케부쿠로 니시구치공원' 포스터



▲ '프로젝트 후쿠시마!' 홈페이지 화면

#### 4) 독일 피나 바우쉬 재단(Pina Bausch Foundation)

##### (1) 개요

피나 바우쉬 재단은 세계적인 무용가이자 안무가 피나 바우쉬(Pina Bausch, 1940 - 2009)의 아들 잘로몬 바우쉬가 2009년에 설립한 단체로, 그녀의 예술세계와 유산을 보존함과 동시에 예술을 통한 사회치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단순히 무용공연을 계승하는 것을 넘어, 아동·청소년·이민자·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서적 회복과 자아성찰을 촉진하는 예술교육을 수행한다. 프로젝트의 기본 철학은 “예술은 치유를 위한 수단이지만, 목표는 아니다”이다. 즉, 예술적 움직임 자체가 마음의 안정과 관계회복을 가능케 한다는 ‘비치료적 치유(Healing through Art)’ 개념에 기반한다.

##### (2) 주요 운영 내용 및 성과

###### ○ 대표 프로그램 ‘융 운트 라우트(Jung & Laut)’

- 참여대상 : 난민 및 이민 청소년(14~16세, 약 18명)
- 내용 : 무용극(Tanztheater) 기반 예술치유 프로젝트로, 연극팀과 영화팀으로 나뉘어 진행
- 운영방식 : 전문 영화감독·안무가·무대연출가와 협업하며, 다문화 언어장벽을 ‘움직임’으로 극복
- 성과 : 참여자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능력을 회복



○ 대표 프로그램 ‘넬켄라인(Nelken Line)’

-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프로젝트로, 피나 바우쉬의 상징적 안무인 ‘사계절의 동작’을 배워 함께 춤을 추는 활동
-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세대·국가·언어를 초월한 공동체 의식 회복의 장으로 확산
- 현재 유럽·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대 운영 중



○ 운영 체계

- 정부·지자체 협력 아래 재단이 총괄하고, 예술가는 일정 자격(청소년활동 경력·전문 예술 역량 등)을 갖춰야 함
- 참여자 모집은 완전 자발적이며, 개별 동기와 감정 표현을 존중하는 구조

(3) 특징 및 장점

- 예술과 치유의 경계를 허무는 접근 : 예술은 ‘결과물’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철학에 근거
- 참여자 중심형·비언어적 소통 기반 : 언어·문화가 다른 이민자·난민 청소년도 움직임을 통해 심리적 거리 해소 가능
- 전문성과 자발성의 결합 :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와 청소년이 협력하며, 단순 체험이 아닌 ‘전문적 예술환경 속 자기표현’ 경험 제공
-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 : 공연·영상 결과물이 축적되어 교육자료 및 지역문화 콘텐츠로 재활용됨

#### (4) 인천 서구 적용 가능성

- 청소년·이주배경 주민 대상 예술심리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 심리적 위축층을 대상으로 무용·연극·영상결합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전문예술가-주민 협업 구조 구축 : 서구문화재단이 예술가 인증제 또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치유 인력풀 마련
- 공공문화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형 공연 : 지역 문화센터나 공원에서 ‘넬켄라인’식 퍼포먼스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주민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

## 5) 독일 콘페티 카페(Konfetti Café)

### (1) 개요

콘페티 카페는 사진작가 미하엘 하게돈(Michael Hagedorn)이 2012년 설립한 ‘콘페티 임 코프 (Konfetti im Kopf, 머릿속의 콘페티)’ 단체가 운영하는 치매 친화형 커뮤니티 예술치유 공간이다. 함부르크 지역의 대표적 사회적 예술치유 거점으로, “치매를 숨기지 않고 사회 속에서 공존한다”는 목표를 지닌다. 이곳은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카페이자, 매주 화요일마다 치매 노인과 가족, 학생,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 프로그램 공간으로 변한다.

### (2) 주요 운영 내용 및 성과

#### ○ 프로그램 구조

- 미술치료, 음악치료, 피에로 공연, 사진전 등 다채로운 예술활동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림
- 함부르크 의과대학(Medical School Hamburg) 미술치료학과·음악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
- “오픈 그룹(Open Group)” 개념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참여 가능

#### ○ 성과

- 치매 노인의 사회적 고립 완화, 가족의 심리적 부담 경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을 줄이고, ‘함께 살아가는 일상 속 치유’라는 모델 확립
- 활동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 사진전 개최 → 시민 인식 개선에 기여

### (3) 특징 및 장점

- 치매 친화 커뮤니티 모델 : 폐쇄된 요양시설이 아닌 개방형 공공공간에서 예술을 통해 사회적 관계 복원

- 다세대·다직종 협력 구조 : 예술치료사, 대학생, 의료인,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
- 예술을 통한 낙인 해소 : 치매를 숨기지 않고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화 형성
- 자연스러운 사회복귀 통로 : 외부인 참여가 가능해 사회적 소통과 재활의 경계를 허무는 효과

(4) 인천 서구 적용 가능성

- 치매·고령층 대상 예술치유 카페형 프로그램 구축 : 지역 카페, 복합문화공간,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해 “서구형 예술치유 카페(가칭 ‘마음다방’ 모델)” 운영 가능
- 대학생 자원봉사 연계 : 지역대학의 예술·심리·간호학과 학생을 연계해 ‘예술돌봄 동아리’ 운영
- 사진전·전시회 통한 사회인식 개선 : 프로그램 참여 과정을 기록하여 전시, 지역축제와 연계해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병행
- 보건복지 - 문화재단 협력모델 : 서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서구문화재단이 공동 운영하는 예술 치유형 커뮤니티 거점화 가능



▲ 콘페티 카페



▲ 융 운트 라우트

#### 6) 피나 바우쉬 재단, 콘페티 카페의 종합 시사점

피나 바우쉬 재단과 콘페티 카페 사례는 모두 예술의 ‘관계 회복’과 ‘공동체 통합’ 기능을 강조한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참여자의 자발성과 예술적 몰입, 사회적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인천 서구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을 통한 주민 정서돌봄’ 정책과 방향성이 일치하며, 향후 “공공공간+예술참여+사회복귀”형 복합문화치유 플랫폼 구축에 유용한 벤치마킹 자료가 된다.

7) 종합정리(표)

사례	개요(핵심)	주요 운영 내용·성과	특징·장점	인천 서구 적용 가능성
영국 - 예술·건강·웰빙 전국연합	2012 출범, 보건부+Arts Council, 지자체·자선 참여 네트워크	현장 제정(2012)·정책 연계 제도화 청소년·고립계층 창의예술 프로그램 자선·복권·지자체 다원재원 예술처방 (Social Prescribing) 기반 마련	중앙-지자체-민간 통합 거버넌스 예술×복지·건강 제도 결합관계 회복·공동체 강화 지향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문화시설 연계 사회예술치유 네트워크 구축의사·코디네이터 연계 예술처방형 프로그램 도입
미국 - 테러 피해자 예술치유	오 클라 호 마 (1995), 9·11(2001) 계기 예술 기반 트라우마 회복	NYU·박물관·치료사 협력 아동 미술치료·부모·교사 동반 프로그램 PTSD·불안·죄책감 완화, 자존감·가족 유대 강화 공공정신건강 프로그램로 정착	비언어적 표현 중심 트라우마 회복 대학-문화 시설-심리전문가 다학제 협력 임상치료 보완	재난·사고·고립가구 대상 박물관·문화센터·대학 연계 예술심리지원지역 문화인프라와 정신건강서비스 연동 모델
일본 - 동일본 대지진 이후	2011 대지진·쓰나미·원전사고 이후 커뮤니티 예술치유 확산	프로젝트 후쿠시마! (페스티벌·보자기 퍼포먼스)로 공동체 상징 복원 Yangdaora : 싱가포르 협력 2주 캠프(아동 PTSD 완화) 국제협력 네트워크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형 커뮤니티 아트예술= 사회적 연대의 행위주인 주체 치유 과정	축제·공공미술을 재난심리 지원과 결합주민 참여+ 회복 동시 달성 프로그램 설계
독일 - 피나 바우쉬 재단	2009 설립, 예술유산+사회치유 프로젝트철학 : 예술은 치유의 수단 (과정)	Jung & Laut: 난민·이민 청소년 무용극·영화 협업 → 자존감·관계능력 회복 Nelken Line: 세계질 동작, 세대·국가 초월 공동체 의식 확산정부·지자체 협력, 전문예술가 자격	과정 중심·참여자 주도·비언어 소통전문성+자발성 결합결과물의 교육·콘텐츠화	다문화·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용·연극·영상 결합 프로그램 예술가 인증·역량강화로 지역 인력풀 구축공공공간 커뮤니티 퍼포먼스 정례화
독일 - 콘페티 카페	2012, 'Konfetti im Kopf' 운영 치매 친화 커뮤니티 카페 (함부르크)	매주 오픈 프로그램 (미술·음악·피에로·사진전)의대·예술대 학생 자원봉사치매 고립 완화·가족부담 경감·포용성 강화기록→사진전 인식 개선	개방형 공공공간에서 관계 복원 다세대·다직종 협력낙인 해소·일상 속 치유·사회복귀 완충통로	치매·고령층 예술치유 카페형 모델(예: '마음다방') 지역대학 자원봉사 연계기록-전시 기반 인식개선 캠페인보건소·치매안심센터·문화재단 공동 거점화

## 제5장. 서구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제안

### 1. 인천 서구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 1) 기본 방향

인천 서구는 급격한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정서적 단절과 관계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단순한 여가나 취미활동이 아닌, 주민의 심리·사회적 회복을 촉진하는 교육적 매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서구형 문화예술교육 모델은 “참여 - 창작 - 회복 - 공유(Participation - Creation - Recovery - Sharing)”의 4단계 순환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주민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다시 지역사회로 소속감을 확장하도록 설계한다.

- 참여(Participation) : 생활권 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문화공간(서곳·청라·거북시장 등)을 거점으로 참여기회 확대
- 창작(Creation) : 미술·음악·무용·연극 등 다양한 예술교육을 통해 자발적 창작 경험 제공
- 회복(Recovery) : 창작활동을 통한 정서안정, 자존감 향상, 관계망 회복
- 공유(Sharing) : 결과물을 지역축제·전시·공연 등과 연계해 지역공동체로 확산

나아가 인천 서구의 문화예술교육은 단기적 프로그램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권 기반의 학습생태계(Ecosystem of Everyday Arts Learning)’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는 지역 예술가와 주민, 학교, 복지기관이 순환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기초지자체가 문화예술교육의 최일선 현장으로서 삶의 질 향상·정서 회복·공동체 회복을 함께 달성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서구는 「인천 서구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안)」 과 연계하여 정서돌봄·문화복지·평생교육의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며,

핵심 전략으로는

- ① 사회적 고립계층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촉진,
- ②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거점(원도심 - 청라 - 검단) 네트워크 구축,
- ③ 온라인 예술교육 및 디지털 전시 플랫폼 운영이다.

2) 대상별 표준 프로그램 모듈

구분	주요 대상	프로그램 형태	운영기간 (회기)	기대효과
고령층 (65세↑)	독거·치매전 단계 노인	회상미술, 합창, 리듬 운동, 사진워크숍	주 1회 ×12주	정서안정, 기억력·인지력 유지
1인가구 (30~50대)	심리적 외로움, 관계단절	야간 창작클래스 (공예·드로잉·밴드메이킹)	주 1회 ×10주	사회적 교류 회복, 스트레스 해소
청년· 은둔형	학교 밖, 구직단절	무용·영상·연극 결합형 자아표현 프로젝트	주 1회 ×12주	자존감·사회적 관계· 자기표현 향상
다문화· 이주민	언어장벽층	‘움직임을 통한 언어없는 소통’ 프로그램	주 1회 ×8주	문화적 포용성 강화, 공동체 소속감 증대

※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진단 → 예술교육 참여 → 결과공유 → 사후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하며, 보건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참여자의 정서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3) 고립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① 디지털·미디어 친화형 고립군

- 주 대상: 20~40대 1인가구, 경력단절 직후, 사회관계는 있으나 대면 접촉이 줄어든 층
- 프로그램 예시:
  - ‘나만의 브이로그 제작’ 워크숍: 기획 - 촬영 - 편집 - 발표를 전 과정으로 구성해 자기 표현 감각을 회복하게 함.
  - 스마트폰 영상 편집 기초: 쉬운 앱을 활용해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어 성취감을 높임.
  - 디지털 스토리텔링(내 생애 인터뷰 영상화): 자기 서사를 영상으로 재구성하게 하여 자존감과 존재감 회복을 돕는 구조로 설계함.
- 목적: 온라인에서의 표현 능력을 오프라인 관계 회복의 디딤돌로 삼는 것이 핵심이므로, 결과물을 참가자 간 공유·피드백하는 시간을 반드시 포함.

#### ② 중장년 1인가구·우울·무기력형 고립군

- 주 대상: 50~60대 이상,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어 고립이 심화된 층
- 프로그램 예시:
  - 신체 움직임 연계 예술치유(무브먼트, 리듬, 퍼커션 드로잉<sup>61)</sup>): 박자·호흡에 맞춘 단순 동작과 음악을 결합해 신체 활성화를 먼저 유도함.
  - 리듬 기반 집단 활동 후 감정 색채화하기: 활동 이후 현재 감정을 색, 선, 점으로 표현하게 하여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언어화·시각화하게 함.
- 목적: 이 연령대는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부담이 있으므로 몸을 먼저 풀고 표현을 뒤에 배치하는 순서가 효과적.

#### ③ 사회적 고립·관계단절형(은둔, 고립청년 포함)

- 주 대상: 대면에 부담이 큰 사람들

---

61) 퍼커션 드로잉은 음악치료와 미술치료의 융합형 표현기법.  
‘퍼커션(percussion)’은 북, 징, 탬버린, 쇠커 등 타악기를 이용해 리듬을 만드는 행위이고,  
‘드로잉(drawing)’은 선, 색, 형태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리듬을 몸으로 느끼며 손의 움직임으로 시각화하는 창작활동이다. 예를 들어, 드럼이나 북의 비트에 맞춰 손이나 붓, 스펀지를 이용해 캔버스에 자유롭게 색과 선을 그려내는 방식.

- 프로그램 예시: 1:1 또는 소규모(2~3인) 미술치료 세션
- 대면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드로잉 미션 후 오프라인 피드백
- 목적: 이 유형은 집단 노출 불안을 먼저 낮춰야 하므로, 관찰 → 참여 → 발표로 가는 3단계 구조로 천천히 올리는 편이 적합함.

#### 4) LMT<sup>62)</sup> 등 심리 분석 연계 미술 치료 프로그램 개발

- 비 언어적 진단
  - 내담자가 말로 “우울하다, 불안하다”를 설명하지 않아도 색, 위치, 형태 선택으로 현재 정서를 드러낼 수 있게 함.
  - 고립 인구처럼 말문이 닫혀 있거나 관계적 경계가 강한 집단에 적합함.
- 현재성 (Here-and-now) 반영
  - LMT는 과거 병력보다 현재의 감정선과 긴장 상태를 보는 데 유리해, 이후 예술 치료 세부 과제를 정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음.
- 프로파일 기반 처방
  - 진단 결과를 통해 ‘각성도가 높은 사람’, ‘정서가 저하된 사람’, ‘대인관계 욕구는 있으나 불안이 높은 사람’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고, 이 유형에 맞춰 미술치료 과제의 난이도·개입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음.
  - 즉, LMT를 먼저 실시하면 “모두에게 같은 미술치료를 한다”가 아니라 “당신 상태를 이렇게 봤으니, 이 과제가 먼저입니다” 라는 식의 개인화가 가능해짐.
- LMT 결과를 활용한 미술치료 세부 설계

##### ① 정서 파악 단계(Assessment Art)

- 자유화, 감정색 카드화, 오늘-어제-내일을 색으로 표현하기 등 간단한 과제로 현

---

62) LMT는 색채·형태 선택을 통해 개인의 현재 정서 상태, 긴장도, 대인관계 욕구 등을 파악하는 투사형 심리 진단 기법

재 정서를 다시 한 번 시각화함.

· 이 단계에서는 ‘잘 그리는가’보다 ‘현재 기분을 재진술했는가’가 목표임.

### ② 표현·환기 단계(Expression / Catharsis)

· 분노·불안이 높은 경우에는 점·선·반복패턴 긁기, 콜라주 찢기-붙이기 같은 안전한 방출 과제를 줌.

· 우울·무기력형에는 ‘완성 경험’이 중요하므로 한 회기 안에 끝낼 수 있는 소품 만들기, 엠보싱 카드, 간단한 파스텔 톤 그림을 넣어 “내가 뭔가를 했다”는 자기효능감을 올리게 함.

### ③ 통합·관계 확장 단계(Integration)

·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타인의 작품과 차이를 보는 집단 피드백을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회복하게 함.

· 여기서 LMT 초기 결과와 작품 변화를 비교해 “처음보다 색이 밝아졌다”, “공간 구성이 넓어졌다”를 피드백하면 참여자가 변화를 인지하기 쉬움.

## 5) 공간 및 인프라 전략

- 거점형 + 이동형 병행운영 : 문화재단, 치매안심센터, 도서관 등 공공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운영과 ‘찾아가는 예술교육버스’ 운영을 병행
-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확충 : 복지관·카페·상가 등 일상생활권을 문화예술교육장으로 전환
- 예술교실형 거점 ‘마음다방(Healing Café)’ 시범운영 : 노인·청년층의 예술참여를 통한 관계 회복형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확장 : 온라인 워크숍, 영상교육, VR 전시관을 통한 접근성 강화
- 유희공간 리모델링 : 빈 상가를 ‘창작·치유형 스튜디오’로 재생, 청년예술가 활동공간으로 활용

## 2. 지역문화자원 활용형 문화예술교육 확장방안

### 1) 서구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자원 연계 필요성

인천 서구의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정서 회복을 넘어,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예술교육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서구는 녹청자(綠靑磁) 등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지역 정체성 강화와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기반 예술교육은 예술적 감수성과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융합하여 ‘정서치유 - 문화유산 - 창의교육’이 결합된 통합형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 2) 녹청자 기반 특화 프로그램 및 굿즈 개발 방안

#### (1) 녹청자의 가치

녹청자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대량생산된 생활도자기로, 투박하지만 독창적인 색감과 형태를 지녀 한국 도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002년 ‘녹청자 도요지 사료관’ 개관 이후 2012년 ‘녹청자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인천 서구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2) 교육 프로그램 방향

- 체험형 교육 : 초·중·고 학생, 성인, 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도자기 제작 체험
- 융합형 수업 : 역사·미술·과학·재료학을 연계한 융합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 디지털 체험 : VR·AR 기술을 활용한 녹청자 제작 과정 및 유적지 복원 체험

- 공동체 참여형 교육 : 가족·다문화가정 대상 생활도자기 제작 및 판화·부조 창작활동 운영

### (3) 굿즈 및 문화상품 개발 방안

- 전통과 현대의 융합 : 녹청자의 색감·문양·질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개발
- 상품화 전략 : 패션·인테리어·생활소품 등으로 확장, 박물관·미술관 MD 상품과 연계
- 친환경·디지털 굿즈 : 지속가능 소재 및 NFT·AR·VR 기반 디지털 콘텐츠 활용
- 참여형 공모전 운영 : 「나만의 녹청자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형 문화상품 개발

### (4) 정책적 의의 및 기대효과

녹청자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서구형 문화예술교육의 특화 모델로,

- ① 예술교육의 지역 정체성 강화,
- ② 주민의 문화 향유 및 자긍심 제고,
- ③ 예술치유와 창의성 증진,
- ④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3. 사회적 예술치유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 1) 통합 거버넌스 구조

층위	주요 기관	역할
정책 총괄	인천 서구청(문화체육관련 부서)	예산·정책 조정, 관련 부서 (보건소·복지담당부서) 협업
전문 허브	서구문화재단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예술가 인증·양성, 프로그램 기획· 운영 총괄
보건복지 연계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심리·정신건강 사전진단 및 사후관리
학계· 전문기관	인천대·가톨릭대·심리학회· 예술치유협회	자문·연구·성과평가
민간 파트너	지역예술가·공방·카페·기업	공간 제공·참여 확대

→ 본 거버넌스는 영국의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모델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형태로, 문화·복지·보건의 연계를 통해 서구형 문화예술교육-정서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예술가 및 운영 인력 체계

- 예술치유가 인증제 도입 : 미술·음악·무용·연극 등 분야별 활동 이력과 심리·상담 기초교육 이수자를 인증하여 전문 인력풀 구성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예술치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전문자문단 상시 운영
- 멘토링 시스템 : 경력 예술가와 청년예술가의 1:1 매칭을 통한 세대교류형 예술치유 운영체계 마련
- 교육·역량 강화 : 서구문화재단 주관 정기 워크숍(분기 1회) 및 사례공유 포럼 개최

#### 4.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1) 재정 및 지원 구조

- 기초·광역 지자체 재원 중심의 안정적 구조 확립
  - 문화예술 분야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정서회복형 예술교육’ 항목으로 지정하여 매년 편성하고, 인천광역시 차원의 광역 연계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과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 국비·시비·구비 연계 편성 체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국비) - 인천광역시(시비) - 인천서구(구비)가 분담하는 3단계 재정지원 구조를 마련한다.
  
- 5개년 단계별 재정계획(안)
  - ① 1단계(2025~2026) : 시범사업(구비 중심 2억 원/년)
  - ② 2단계(2027~2028) : 권역별 확산(시비·구비 매칭 4억 원/년)
  - ③ 3단계(2029~2030) : 상시운영 정착(국비·시비·구비 통합 6억 원/년)
  
- 지속가능성 확보
  - 광역 - 기초 연계사업으로 전환 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내 ‘정서 돌봄형 문화예술교육’ 세부사업으로 편입하여 재정 안정성 확보.

2) 조례 재·개정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정서적 복지’와 ‘건강권 확보’ 관점 추가

- 기존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인력·시설 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단순히 ‘교육 지원’ 조례를 넘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치유적 기능을 명문화 하도록 한다.

구분	현재 조례의 한계	추가 방향
목적조항	교육 활성화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정서적 복지, 건강권 증진 명시
정의조항	‘문화예술교육’과 ‘전문인력’에 한정	‘문화예술치유’, ‘정서적 복지’ 등 개념 신설
구청장 책무	교육 진흥만 명시	구민의 심리·정서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추가
지원조항	프로그램 개발·보급 중심	취약계층·사회적 고립 인구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명시
지원센터 조항	행정적 지원 기능 중심	문화예술치유사업 및 사회적 예술치유 관련 연구·협력 추가

▲조례 재·개정 방향 정리표

○ 조문 개정(신설) 제안안

- 제1조(목적) 개정안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구민의 정서적 복지와 심리적 안정,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3·4호 신설

: “문화예술치유”란 예술적 활동을 통해 개인 또는 공동체의 심리적·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정서적 복지”란 구민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감정의 안정, 자존감 회복, 공동체 소속감 등을 증진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개정안

: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정서적 복지와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취약계층, 사회적 고립 인구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제한된 주민에게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②항 신설

: ② 구청장은 구민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술치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항에 추가

: 사회적 고립 인구, 고령자, 청소년 등 대상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문화예술을 통한 주민 정서 복지 증진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 제10조(시행규칙) 이후 신설\_ 제11조(평가 및 보고)

: 구청장은 매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복지 및 건강권 증진 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정(안)	주요 개정 이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b>문화예술을 통한 구민의 정서적 복지와 심리적 안정,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함을</b>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단순 교육·진흥 기능을 넘어, 정서적 복지 및 건강권 증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명문화함.
제2조 (정의)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	(현행 1, 2호 동일) 3. “ <b>문화예술치유</b> ”란 <b>예술적 활동을 통하여 개인 또는 공동체의 심리적·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회</b>	문화예술치유 및 정서복지 개념을 정의하여, 정책적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함.

	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정서적 복지”란 구민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감정의 안정, 자존감 회복, 공동체 소속감 등을 증진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항은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정서적 복지와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사회적 고립 인구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제한된 주민에게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의 책무에 정서복지·건강권 증진 정책 수립의무 및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복지적 책임을 강화함.
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내용 유지) ② 구청장은 구민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술치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기존 ‘교육 지원’ 중심 조항에 정서적·치유 목적의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추가함.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②(현행 동일)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 각호 유지) 9. 사회적 고립 인구, 고령자, 청소년 등 대상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0. 문화예술을 통한 주민 정서복지 증진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순 행정지원에서 문화예술치유·정서복지 중심 연구 및 사업 수행 기관으로 확대함.

(신설) 제11조 문화예술 교육 정서복지 사업 평가		<b>제11조(문화예술교육 정서복지사업 평가)</b> 구청장은 매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복지 및 건강권 증진 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및 구의회 보고 의무를 신설함.
--	--	--	---------------------------------------

### 3)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구분	정량지표	정성지표
참여도	회기참여율·완주율·재참여율	프로그램 만족도
심리변화	사전·사후 우울·불안 (PHQ-9, GAD-7)	정서안정감, 소속감, 관계만족도
사회적 효과	신규 네트워크 수, 주민협력활동	사회복귀·자원봉사 참여율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우울증 선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보고형 검사. 미국에서 개발된 공인 도구로, 의료·심리·복지·예술치유 프로그램 등에서 널리 활용된다.

· 총 9문항으로서 각 문항은 지난 2주 동안의 경험을 묻는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① 일상생활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 ② 우울하거나, 기분이 가라앉거나, 희망이 없었다.
- ③ 잠이 들거나 유지하기 어렵거나 너무 많이 잤다.
- ④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었다.
- ⑤ 식욕이 떨어지거나 과식했다.
- ⑥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지거나, 자신 또는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꼈다.
- ⑦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조차 집중하기 어려웠다.
- ⑧ 너무 느리게 움직이거나 말하거나, 반대로 너무 초조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 ⑨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자해하려는 생각이 들었다.

· 응답 형식: 각 문항은 0~3점(‘전혀 아니다’~‘거의 매일’)의 4점 척도로 구성

총점	우울수준	해석
0~4점	없음 또는 최소	정상 범위
5~9점	경미한 우울	관찰 필요
10~14점	중등도 우울	전문상담 또는 치료 권장
15~19점	중등도 우울 ~ 중증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필요
20점 이상	중증 우울	적극적인 전문치료 필요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은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자가 보고형 평가도구. PHQ-9이 우울증을 평가한다면, GAD-7은 불안장애(특히 범불안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 총 7문항으로서 각 문항은 지난 2주 동안의 경험을 묻는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①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초조했다.
- ② 걱정을 멈추거나 조절하기 어려웠다.
- ③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했다.
- ④ 편안히 쉴 수 없었다.
- ⑤ 너무 안절부절못하거나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 ⑥ 쉽게 짜증이 나거나 신경질적이었다.
- ⑦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 응답 형식: 지난 2주 동안의 상태를 기준으로 0~3점(‘전혀 아니다’~‘거의 매일’)의 4점 척도로 응답

총 점	우울수준	해석
0~4점	없음 또는 최소	정상 범위
5~9점	경미한 불안	주의 필요
10~14점	중등도 불안	상담 및 치료 권장
15점 이상	중증 불안	적극적인 전문치료 필요

- 성과 공유회 개최 : 매년 말 ‘예술로 치유하는 서구 포럼’ 개최, 우수참여자·운영기관 시상
-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프로그램 참여·심리지표·성과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문화예술치유 DB 시스템 운영

#### 4) 확산 및 지속 전략

- ‘마음연결주간(Healing Week)’ 정례화 : 주민 창작전시, 공연, 토크콘서트로 결과 공유
- 우수사례 DB화 : 프로그램 성과를 교육·홍보·정책자료로 축적
- 법·제도화 추진 : ‘문화예술교육 및 정서회복 지원 조례’ 제정 검토
- 대학·연구기관 협력 : 지역 대학과 연계한 예술교육-치유 교과과정 공동개발
- 디지털 플랫폼 운영 : 참여자 콘텐츠를 VR 전시·영상자료로 재가공해 지속적 접근 유도

## <참고문헌>

- 오세준(2016),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Cultural Arts의 개념」
- 김선아(2015), 「학교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디자인 교육의 의미와 핵심 개념 탐색」
- 김인성(2022), 「디지털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와 전망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강현주·김앵아 (2021), 「인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안 연구」
- 정옥희·한정화 (2024), 「지역 연계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미술 프로그램 개발」
- 정지은(2022), 「마을공동체 기반의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사례 연구」
- 문화예술교육지원법(국가법령정보센터)
- 홍애령(2022),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
- 고인석(2018), 「학교예술교육진흥법 제정필요성을 중심으로」
- 정보람(2022), 「문화예술기반 사회적치유 정책방안 연구」
- 정경은(2025), 「개인과 사회의 아픔을 예술로 치유할 수 있을까」
- 장혜윤(2022),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 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 박명숙, 김윤태(202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국민 노후보 패널조사> 활용한 통계분석」
- 정은혜(2024), 「노년기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정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 곽현주(2012), 「예술심리치료의 특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
- 김선아(2015), 「학교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디자인 교육의 의미와 핵심 개념 탐색」
- 김인성(2022), 「디지털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와 전망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오세준(2016),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Cultural Arts의 개념」
- Anita Jensen(2024), "The impact of arts on prescription on individual health and wellbeing."
- Genevieve A. Dingle (2025), Australian and UK Perspectives on Social Prescribing Implementation Research: Theory, Measurement, Resourcing and Discovery to Ensure Health Equity
- 서구 사회적 예술치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연구 보고서(2025)
- 서울시복지재단(2025), 사회적 고립이란. 고립예방플랫폼 똑똑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인천 서구, 제9편 문화관광체육, 제1장 문화예술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인천 서구, 제14편 복지정책, 제1장 복지정책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인천 서구, 제14편 복지정책, 제2장 희망 복지지원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인천 서구, 제16편 노인장애인, 제1장 노인복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인천 서구, 제17편 교육지원, 제4장 청소년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인천 서구, 제18편 가정교육, 제2장 가족지원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인천 서구, 제41편 보건, 제4장 치매정신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인천 서구, 제41편 보건, 제4장 치매정신
- 인천광역시 서구 세출 총괄표 - 2024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 인천광역시 서구 세출 총괄표 - 202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 인천서구문화재단 2025년도 세출 예산서
- 행정동별 성/연령별 주민등록 1인세대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인구 현황,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2024년도 말 기준)
- 인천서구 문화재단
- 인천광역시청년지원센터
- 브레이크 뉴스(“25.7.14.), “인천서구문화재단, 지역특화형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서로-예술노리’ 추진”
- 내외신문(“24.7.4.), “영등포구, 고립·은둔 청년 위한 ‘나-Be!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24.11.22.)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인천투데이(“24.11.13.), “인천 고립·은둔청년 8% 달해... 지원정책은 ‘전무’“